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30
4	讲义	65
5	퀴즈	88
6	토론	92
7	자료	95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해방 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강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해방 후 한국의 고도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 02

#### 학습목표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역사적 사실과 경제학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이해한다.
- (2) 각 시대의 제도와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학습한다.
- (3) 제시된 도표를 작성하는데 이용된 통계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좌는 지난 100여 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변모 과정을 가능한 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량적으로 이해하고 외국과도 비교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 한국인의 근현대사에 관한 인식에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주의나 이념 대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거나 경제학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04

## 주차별 구성

1주차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
2주차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
3주차	화폐금융과 재정
4주차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
5주차	생활수준과 불평등
6주차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
7주차	식민지 지배와 제도 변화
8주차	식민지기 경제개발
9주차	해방, 분단, 전쟁과 원조경제
10주차	고도경제성장
11주차	정책전환과 사회개발
12주차	저성장 속의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주차

##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

6-1

###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년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섯 번째 강의로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2부입니다. 제2부는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는데,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 시기인 개항기를 다룹니다.

제1부는 주로 20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된 장기 통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항기는 무역통계를 제외하면 의거할만한 통계가 많지 않습니다. 근대적 통계 조사가 식민지기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항기에 관해서는 한국을 방문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관찰 기록을 남긴 영국인 비숍의 기행문을 이용하여 19세기 말의 상황을 들려다 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후술하듯이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이 시기 무역의 실상과 함께 그것이 당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의 작가이자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회원인 지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비숍의 모습입니다. 비숍은 세계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현장을 보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비숍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63세의 고령이었지만, 고종과 민비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났고, 외교관이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곳곳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접한 조선인들 삶에 관한 생생한 관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1897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Korea and Her Neighbors*, 한국어판으로는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입니다. ‘저자 서문’의 첫 문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어권 독자들에게 조선에 대한 비숍의 생각을 간략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1894년 겨울과 1897년 봄 사이 나는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을 답사했다. 한국 여행은 몽골리안들의 국가와 지리, 그 민족적 특성을 연구해 온 내 학문적 계획의 일부였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한국이 지금까지 내가 여행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곧 청일전쟁 동안 한국의 정치적 불안, 급속한 변화, 그리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한국의 운명을 깨달으면서 이 나라에 대해 참으로 강렬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 시베리아의 러시아 정부 아래 있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현황을 보았을 때 나는 미래에 있을 이 나라의 더욱 큰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나라가 처음에 안겨주는 찰싹한 인상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시 외국인이 조선에 대해 연구서를 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거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숍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전달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이 시기 한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유럽인들을 인터뷰했다.”

즉, 비숍은 현지의 조선인의 삶을 직접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나 외교관의 경험과 지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찰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탐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서술할 수 없는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결혼이나 장례, 무속신앙이나 귀신에 관한 서술이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 비숍은 “이 책의 몇 가지 주제에는 상세한 세무 묘사들이 있는데 이는 곧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는 관습들과 제사 및 의식을 종이 위에 기록하여 남기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술을 보면 현재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결혼이나 장례의 각 절차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귀신이나 미신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던지를 알게 해 줍니다.



나아가 일본인들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서술할 때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숍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을미사변 관련 법정에 직접 참관해서 지켜보았던 심문과 판결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기행문은 비숍이 직접 관찰한 것 이외에도, 당시 유럽인들이 조선과 조선인을 어떻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반영되어 있고, 조선인들의 관습이나 문화에 관해서는 현지인들의 생각을 탐문하여 정리한 결과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 대한 비숍의 인식이 점차 깊어져 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기행문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록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나는 여행의 경험들을 일본에서 한 것처럼 그때그때 편지로 남기지 못했다. 대신 노트에 세심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찰을 오래 수행하면 할수록 점차로 수정되었다.”

즉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그 자리에서 세심하게 기록으로 남겼고, 그에 의거해서 기행문이 서술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기억에 의존해서 서술된 것보다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행문에서 관찰자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시를 살았던 현지인이 기행문을 썼다면,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거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은 4~5세대를 앞서 살았던 조상보다는 비숍과 같은 외국인의 관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세기 말의 영국에서 살았던 비숍은 근대의 산업사회를 이미 경험하였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포함하여 근대 정치 및 사회 체제에 관한 인식도 현재의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를 보는 관점이 비숍과 현재의 한국인이 공유되는 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기행문은 마치 비숍의 눈을 통해서 125년 전의 조선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비숍이 영국인이므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에 오리엔탈리즘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양의 문화나 가치가 서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기행문에 그렇게 해석될만한 서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애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숍이 한국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운명을 놓고 서로 대립한 상태에서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내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느꼈던 혐오감은 이제 거의 애정이랄 수 있는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전의 어떤 여행에서도 나는 한국에서보다 더 섭섭하게 헤어진 사랑스럽고 친절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숍이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당시 국제정치에서 영국이 취한 외교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중에 일본의 야욕이 들어났음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변호한 셈이 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비숍의 편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숍은 마지막 장에서 조선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군주의 권력을 헌법의 제어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조선 내부에는 그러한 개혁의 담당 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숍은 조선이 필요로 하는 외부의 도움을 결국은 일본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함께, “슬프게도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립되기 어려운 비숍의 전망은 당시 조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즉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이를 개혁할 역량을 갖춘 세력이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나라들은 오히려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딜레마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6-2

## 경제 및 사회 상황

비숍의 기행문에는 그녀가 접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만난 풍물이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중에서 먼저 당시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지를 어떤 교통편으로 이동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비숍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제물포로 갈 때에도 배로 3일 걸려 이동하였고, 나중에 원산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때의 선편은 모두 일본의 일본우선이라는 해운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즉 1884년까지만 해도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선편이 5주에 한 번, 부산을 거쳐 제물포로 가는 선편은 한 달에 한 번 운행되었는데,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증기선들이 부산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비숍이 찍은 제물포의 모습입니다. 비숍은 여행할 때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7.3Kg이 나 하는 세 발 달린 카메라와 1.8Kg의 손 카메라와 그에 딸린 기구들입니다.

제물포에 도착한 비숍이 서울로 이동할 때는 배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포와 마포 간의 증기 연락선을 설치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물이 얇은 곳이 있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총영사가 제물포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비숍은 6명의 가마꾼이 드는 가마를 타고 7시간 걸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총영사는 가마꾼이 끄는 조랑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길은 종종 깊게 파인 진흙 웅덩이가 나왔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길이 없는 곳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비숍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한강이나 북한강 주변의 마을들을 답사하였는데, 그때에는 나룻배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방의 도로에 관한 비숍의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을 타거나 터덜터덜 걸거나 어느 경우든 한 시간에 4.8킬로미터 이상을 갈 수 없는 한국의 도로는 거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거의 없어서 여름에는 먼지 자욱한 길, 겨울에는 눈 녹은 진창 길이 되는데, 그나마 청소하거나 보수하지 않아 길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하고 돌출한 돌맹이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도로는 말과 사람의 통행에 의해 발자국이 나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다. … 많은 개울에는 다리가 없고 다리가 있어도 통나무에 나뭇가지를 얹어 놓은 정도였다. … 심지어는 서울의 중앙으로 통하는 ‘6대로’까지도 다리의 상태가 부실하여 마부가 말에서 내려 다리가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서너 걸음 앞서 걸으며 확인하면서 건너간다. … 내가 광범하게 체험한 바에 따르면, 교통의 불편이 한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임에 틀림이 없다.”

비숍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부산의 개항장에 있는 외국인 거류지였습니다. 비숍의 묘사에 따라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중요한 영사관들, 은행들, 많은 일본식 상점들과 다양한 영국 또는 일본식 주택들이 언덕과 바다 사이를 뺨뺨이 들어찬 꽤 아름다운 마을이다. 거기에 견고한 옹벽과 제방이 있으며, 자치 당국의 비용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배수시설과 점등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개별 가구당 현금 100푼씩 할당해서 징수한 자금으로 상수도가 가설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빈번했던 유행성 콜레라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시 위쪽에 급속히 채워지고 있는 일본군의 군인 묘지였다.”

“어느 면으로 보나 부산의 거주지는 일본풍이다. 5,508명의 일본 인구 이외에도 8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 어부들의 유동인구가 존재한다. 일본 총영사관은 세련된 유럽식 가옥에 기거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제일은행이 들어와 있고, 우편 전신 업무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갖추어졌다. 일본인은 거주지를 청결하게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산업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기계를 이용한 탈곡과 정미업, 고래잡이, 어분 비료 제조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이 거주하는 곳은 부산의 구 시가지였으며, 외국인이 거주하는 신 시가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숍의 묘사에 따르면, “부산 구 시가지의 좁은 거리는 초라한 오두막집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오두막집들은 창문이 없는, 진흙으로 된 담벽과 짙으로 된 지붕의 깊은 처마를 가졌다. 모든 벽에는 지상으로부터 60센티미터 되는 높이에 굴뚝의 역할을 하는 검은 연기구멍이 나 있었다. 오두막집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쓰레기들이 버려진 불규칙한 도랑이 나 있었다. … 좁고 먼지 많은 구불구불한 거리를 따라 상품들이 땅바닥에 무더기로 놓여 있었다. …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드높고, 물건값을 깎느라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데 팔릴 때는 원래 불리어진 값의 1/10에도 못미치기 일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에 대해 살펴본 외국인과 조선인 거주지의 대비되는 모습은 제물포와 원산의 개항장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물포에 관한 묘사를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인 거주지는 서울로 가는 큰 길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인의 마을은 그 바깥에 위치한다. 영국 교회가 서 있는 언덕 아래로부터 그 언덕을 타고 오르며, 더러운 샛길을 거쳐 닿을 수 있는 모든 암층 위에 조선인들의 토막이 짝 들어차 있다.”

“이 도시의 6,700명의 주민들, 더 정확히 말해 그 중 절반 가량의 남자들은 늘 움직이고 있었다. 좁은 길을 항상 의관을 갖추고 어슬렁거리면서 걸으려는 아무런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1달러에서 많아야 20달러 정도의 재고품을 갖춘 상설 점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구 시가지와 다를 바 없다. 소액의 거래에도 흥정하는데 한 시간 넘게 쓰면서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외국인 거주지에서 조선인들은 주로 짐꾼으로 일하며 그들의 나무 지게로 엄청난 무게의 짐을 운반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 같다.”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것은 조선이 개항하면서 일본을 비롯하여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간략히 보충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 정부가 1876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에는 부산, 나중에 제물포와 원산이 추가되어 개항하고, 부두로부터 동서남북 10리의 범위 내에서는 일본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상, 일본 화폐의 유통이 가능하였고,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본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영사재판권이라 하였는데 조선 내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조선의 주권이 제약되고 있어 불평등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항장의 외국인 거류지가 압도적 다수인 일본인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만들어 지고 마치 little Japan과 같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비숍이 방문했던 것은 개항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 외국인 거류지와 구래의 조선 사회 간의 대비가 뚜렷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82년에 조선과 청국이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더욱 심각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민씨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빠지자 민비가 청국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속에서 맺어진 조약이었으며, 거기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국의 치외법권이 강화도조약보다 더욱 강화되었고, 청국 상인이 개항장 이외에 양화진과 서울에서의 통상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국 상인의 통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앞서 진출한 일본 상인과의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폐기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과의 통상조약이 맺어졌으며, 앞서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의 내용이 대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비숍의 여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숍이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진 3은 남대문 사진입니다. 좌우로 초가의 민가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4는 서울의 광화문 일대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광화문이 보이고 왼쪽에 경복궁이 보입니다. 이 일대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5는 서울의 남쪽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길의 양쪽에 초가와 기와집이 늘어서 있으며 길에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 6은 서울의 잡화상이라 되어 있는데, 파는 물건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행할 때 부딪치는 문제의 하나가 여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개항장이나 서울에서는 일본의 엔이나 달러를 환전할 수 있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50일간 체류한 비숍은 나룻배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을 답사한 다음, 나룻배를 버리고 육로로 금강산을 거쳐 원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폐에 관한 비숍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내륙 지방을 향하는 모든 여행자들을 괴롭히던 돈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계획을 잡게 되었다. 일본의 엔화와 그 잔돈들은 오직 서울과 개항장에서만 유통되었으며, 은행이나 환전상은 내륙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현금만이 유통되었다. 당시 한국의 화폐가치는 명목상으로 달러 당 3,200푼에 달했다. 이 동전은 수백 개씩 밀짚 끈에 꿰어져 있는데, 그것을 세는 것이나 운반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것이 모두 성가신 일이 된다. 100엔을 현금으로 운반하는데 여섯 사람 또는 한 마리의 조랑말이 필요하다. 단 10파운드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현금이란 엽전을 말하는데, 현재로 비유하자면 몇백만 원이 드는 여행 경비를 모두 10원 짜리 동전으로 싸 짊어지고 가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7은 비숍 일행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조랑말에 타거나 짐을 싣고 이동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8은 비숍 일행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용했던 나룻배입니다. 이 나룻배를 이용할 때는 조랑말을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엽전을 바닥에 까는 방식으로 운반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여행자들은 그들의 영사를 통해 외교부에서 지방 관청으로 보내는 단자라고 불리는 편지를 지참하고, 이를 지방 관청에 보이면 음식과 교통 또는 돈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과는 달리 지방 관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지방 관청에서는 이를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숍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여행 중에 사용할 엽전을 나룻배의 바닥에 깔아서 운반하였습니다.



여행 중 남한강을 돌아 나와 단양에 도착했을 때는 바꾸어간 엽전이 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갖고 간 은화를 엽전으로 바꾸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은의 가치를 믿지 않아 교환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했고, 환전을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천 근처의 마교 장터에서 은화 70개를 6천 냥의 동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장정 6명을 동원해서 동전을 배까지 날라 배의 바닥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일전쟁 발발 후에 비숍은 조선을 떠나 중국의 각지를 답사한 후 일본을 거쳐 1895년 겨울에 다시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때 평양을 비롯한 조선의 서북부 지방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일본의 영향아래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엔화는 서서히 한국경제의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새로 주조된 한국의 주화의 견본조차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번의 여행처럼 돈을 한 짐 싸들고 다녀야 한다거나, 엔화를 거슬러 받을 수 없어서 곤란에 처하는 불편이 없이 모든 여관에서 쉽게 통용되는 커다란 엔 은화를 사용하면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엔화의 조선 내 유통도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숍은 조선의 상거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상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상점에 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상점들 역시 서울의 인상을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데 큰 몫을 한다. 대개 서울의 상점에서 내다 파는 물건들을 다 합해 봐도 6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 나는 종각 옆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큰 상점에 한번 가 보았다. 가게 안의 상품들을 모두 한 아람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었다. 서울의 3대 대로 가운데 하나는 건다 보면 큰길에 수레로 된 움직일 수 있는 간이매점이 두 줄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런 곳이나 다른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중요 상품 22가지를 든다면 아래와 같다. 면제품 옷감, 짚신, 삿갓, 도자기, 촛대, 빗, 유리구슬, 담뱃대, 담배쌈지, 타구(唾具), 뽕테 안경, 한지, 목침, 사방침, 부채, 잉크병, 말안장, 빨래 방망이, 꽃감, 알사탕, 미역, 버섯 등이다. 이 밖에도 유럽인들의 저급한 취향이 그대로 베여 있는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외제 수입품의 조악한 컬렉션이 있다. 6페니짜리 등유, 손거울, 번쩍거리는 그릇 등이다. … 평범한 낚시 식기 세트와 기타 낚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검은 라커칠을 한 목공 제품에 조개껍질로 전통 문양을 만들어 붙인 제품이 종종 팔리기도 한다. 또한 비단에 금실로 자수를 놓은 제품들이 있으나 그 디자인이 거칠고 색깔도 조야한 것이 많다. … 그리고 외국인들은 영국 공사관이 있는 거리를 ‘장롱의 거리’라고 부른다. 이들 장롱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정말로 멋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철저히 한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화려하다.”

서울에는 상설 상점이 있었지만, 지방으로 가면 5일마다 서는 장시를 제외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황해도 봉산의 장터에 관해서는 비숍이 거래된 상품을 거의 망라하듯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는 가게라곤 없었고 있다 해도 아주 적었다. 누구도 상품을 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장날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평상시 잠잠하고 답답했던 마을들은 장날에는 일변한다. 떠들썩해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사람들의 물결로 뒤덮이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터로 가는 길은 농부들이 팔거나 물물교환할 물건들도 가득 찬다. … 그 옆의 큰 길에는 보부상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짐꾼이나 황소에 짐을 싣고 간다. … 몇몇 사람들은 노점 진열대를 세우고 비단, 모시, 호박, 허리끈, 단추, 조그만 거울, 담배쌈지, 색경 등을 판다. 그러나 많은 양의 필수품과 사치품들은 대부분 낮은 탁자나 땅 위에 놓인 돛자리 위에 전시되는데, 상인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얼마가 돈을 치른다.”

비숍은 마치 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듯이 더 이어집니다. 비숍은 각 품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지만, 여기서는 품목만 나열하겠습니다.





즉 참깨가 뻥뻥이 박힌 엿, 사탕과자, 일본과 영국산 셔츠감, 삼베옷, 터키산 빨간 무명옷, 얇은 비단, 아날린과 사프란 인디고 등의 염료, 성냥, 나무빗, 금속 머리핀, 돈지갑, 전라도에서 온 종이, 짚으로 된 돗자리, 부싯돌, 아마포나 짚이나 갈대로 만든 모자, 한국에서 생산된 조잡하고 좁다란 면옷, 말 재갈, 나막신, 철제 제품으로서 냄비, 가래, 문고리, 못, 그리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장독들, 그 외에도 우비, 기름종이, 모자뒤편개, 고춧가루, 쌀, 완두콩, 두부 등입니다.

이들은 농민들이 장시에서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농민이 내다 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부상에 의해 공급된 것입니다. 제법 다양한 물품들이 장시에 나왔는데, 그중에는 일본이나 영국산 면제품이나 잡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품이 농촌의 장시를 통해서도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장시의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품목을 나열한 다음 뒤이은 비숍의 묘사에 따르면, “거래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고 모여든 사람들도, 몇 시간씩이나 그들 사이에 서 있었던 암전한 황소처럼 대개 조용했다. 오후 늦게 행상인들은 짐을 꾸렸고 다음 장터에 들르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비숍이 관찰하지 못한 큰 돈벌이가 되는 상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묵었던 집은 집주인의 중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오락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비숍의 일행으로 통역을 맡았던 관료 출신의 이씨는 매일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그를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겼다. 그 식사의 1인당 음식값은 세인트 레스토랑의 저녁값과 맞먹는다! 소음은 이들 모임의 필수적 요소다. 남자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고향지른다.”라고 하였는데, 이 인용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인데, 상인들의 씹씹이가 비숍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소비지출을 감당하려면 전술한 서울의 상점과 농촌의 장시에서의 돈벌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먼저 한강 유역의 주민들에 대해 언급과 다른 지역의 농업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농부들인데, 대부분이 양반으로부터 농지를 빌어 쓰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추수를 마친 후에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억압적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주는 씨앗을 제공하며, 농부는 지주에게 소출의 반을 지불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땅을 사서 권리증서를 획득하였다. 1894년에 그들은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을 지불하였고 보리, 콩, 쌀, 목화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총합은 변동이 있었다. ... 돈은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행해지거나 혹은 농부들은 자기 노동으로 댓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농부들의 가장 중요한 지출은 좋은 의복용으로 외국산 면제품을 사는 것이다. 내륙 수로의 종착지로 잘 알려진 영월에서 이것은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인 50센티미터 당 30전으로 팔리고 있다.”

“장안사에서 원산까지 육지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한강 유역에서보다 한국의 농업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일본의 정갈함과 산뜻함, 중국의 부지런하고 알뜰함에 비해 한국의 농업은 다소 험프고 정리되지 못한 감이 들었다. 여름에 김을 매 주어야 할 잡초가 남아 있고 돌맹이들이 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들 주위와 논둑은 울퉁불퉁하고, 그리 보기 좋지 않은 농가의 돌담은 심히 파손되어 있었다. 들을 가르는 좁은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논고랑도 똑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작물의 발육상태는 좋았고 대부분의 작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청결했다. 가축은 거의 없었고 서울 주변이나 도시 근교의 지역을 빼고는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땅이 충분히 비옥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비숍은 같은 시기의 일본과 중국을 두루 답사하였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특징을 그들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숍이 조선에서 답사한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 주변 지역과 거기에서 원산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서북지방이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촌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곳에 사는 농민이나 양반 또는 관리들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양반 관리들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기생충’이라 할 정도로 평가가 혹독합니다. 여주를 방문했을 때 그에 관한 서술을 소개하면, “관아 안에는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기기에 티를 모자를 쓰고 푸른색이 주색인 조잡한 면직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포졸들, 문필가들, 부정한 관리들, 늘 일이 손에 달린 척 가장하는 전령들이 있었고, 많은 작은 방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 서예 도구를 옆에 놓고 긴 장죽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주엔 ‘높은 양반’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단지 700호 가구를 가진 마을의 지방관은 자연히 그리 높은 지위가 아닌 것 같았다. 지방관이 부임해 왔을 때 그들은 낮춤말을 쓰고 마치 그들의 하인에게나 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방관 또한 그렇게 주로 서울에 살면서 가끔 넓고 정성들여 장식한 관아의 폐허 같은 자신의 근무지에 내려와 일을 하고 약탈품을 나눠 갖는 것이다. 결국 양반들은 그들이 무슨 계락을 세워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강변가의 지방관들은 부재중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에서 조세를 짜내는데 보내고 있다. 나는 세 명의 다른 지방관들과 비슷한 면담을 했다. 나는 3엔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 외에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금고가 비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양반 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비습을 대하는 그들의 불친절로 인해 강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묘사된 일들을 모두 비습이 직접 관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녀가 만난 조선에 살았던 선교사나 외교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에 관한 비습의 인식은 다음의 묘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만일 가난이라는 것이 생필품의 부족이란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한강 유역의 계곡들에 사는 주민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한국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에게 환대를 바랄 수 있는 길손을 위해서나, 충분한 정도의 생필품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들은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채의 굴레를 목에 감고 있지 않은 한국인은 정말 드물다. 말하자면 그들은 생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물품보다는 돈이나 재산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번’것으로 알려지거나, 심지어는 사치품인 낫쇠 식기를 샀다고 알려지기만 해도, 근처의 탐욕스러운 관리나 그의 앞잡이의 주의를 끌게 되거나, 부근의 양반으로부터 대부를 갚도록 독촉당하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역의 자작 농가들은 실질적인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비습은 경제 이외에도 조선인의 관습과 의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또는 귀신이나 미신에 관한 서술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당시 조선인의 숭배하였던 귀신들의 족보[神譜]나 서열, 무당이나 지관 또는 무당의 악귀를 쫓아버리기 위한 축귀법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늘과 땅과 별과 공기와 산과 강과 바다에 귀신이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는 귀신은 그늘진 나무, 계곡, 많은 샘, 그리고 산마루에 자주 들른다. 녹색의 언덕비탈 위에, 농사가 지어지는 평화로운 계곡 속에,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나무가 많은 고지에, 길과 강 옆에, 심지어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귀신은 널리 도사리고 있으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 극히 음성적인 장난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믿어진다. 또 귀신들은 지붕, 천장, 아궁이, 광과 석재 어디에든 있다. 그들은 굴뚝과 헛간과 마루와 부엌을 채우고 있다. ... 이러한 다신관은 자연의 냉혹함이 비교적 적어 자연과 거래를 두고 대상화하기보다 정서적 감정적으로 동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환경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그들을 소심한 불안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 귀신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를 계속하게 만든다. 그리고 귀신은 그들의 숭배가 소홀할 때는 가차없는 재난으로 보복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국 평생 동안 귀신에 대해 노예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의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무당을 부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쌌다. 무속사업은 매년 2억 2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귀신의 은혜를 얻거나 불운을 피하고자 할 때는 그 중개인으로서 주술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는다. 민중들을 억압하는 것은 의식에서 쓰여지는 제물이나 무당의 현세적인 권력이 아니라 무당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속신앙은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일부의 식자층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왕족을 비롯해서 빈궁한 초가집에 거주하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녀자와 대다수의 남성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비숍의 인식은 그녀가 시베리아의 조선인 정착촌을 방문하게 되면서 크게 바뀝니다. 그녀는 러시아령 만주로 간 것은 2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이 자신의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 아래에 있을 때 생활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제도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함경도로부터 국경을 넘어 굽주린 조선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프리모르스크를 중심으로 정착민이 16,000명에서 1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1884년 이전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러시아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치가 운영되어 이 지역의 관리들이 한국인 가운데에서 뽑혔습니다. 이들에 관한 비숍의 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의 한국 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또는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활발한 움직임이 우쭐대는 양반의 거만함과 농부의 낙담한 빈둥거림을 대체했다. 돈을 벌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만다린이나 양반의 착취는 없었다. 안락과 어떤 형태의 부도 더 이상 관리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 불과했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 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1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현대의 제도 경제학의 핵심을 19세기 말의 비숍이 정확히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단순한 이론적 추정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 아래 살고 있는 두 조선인 집단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다는 ‘실험’의 결과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한가지 추가하고 점은 비숍이 조선을 여행하면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인용은 서울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감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럽에는 서울처럼 치안이 잘 유지되어 여자들이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도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 성벽 밖의 모든 곳을 어떤 사소한 불상사도 겪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깨달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닐 때도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으로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불편하게 만  
 든 점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치안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숍이 만주에서 마적  
 을 만나 귀중품을 털렸던 것과 대비됩니다. 현재에도 서울은 세계의 도시 중에서 가장 치안이 잘 유  
 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어 이어지고 있는 이 조선사회의 특질은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6-3

###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개혁의 좌절

비숍이 방문했던 1894년 2월에서 1897년 1월까지의 기간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국내 정치가 요동을 친 시기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기행문의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 주요 사건의 큰 흐름을 요약한 다음, 비숍이 남긴 ‘한국에 부치는 마지막 말’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숍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동학 농민봉기가 막 일어났을 때인데, 농민군에 의해 진주성이 함락되자 위기를 느낀 조정은 다시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도 군대를 보내 그해 6월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였고 그 영향 아래에서 개화파 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후 19개월 동안 1차~3차에 걸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중앙관제를 개편하여 의정부를 중앙통치의 중추기관으로 하고 그 산하에 8개 아문을 두었습니다. 궁내부를 분리하여 의정부에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제 폐지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제도의 시행, 조세 금납화, 은본위 화폐제도 시행, 도량형 통일, 경무청의 설치와 기존 군제의 폐지, 문벌의 폐지와 신분제 철폐, 조혼 금지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광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근대적인 제도개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84년 갑신정변이나 동학 농민봉기를 통해 표출된 조선 내부의 개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일본의 개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타율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이 청국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자, 러시아를 비롯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3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되돌려 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 하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고 고종과 민비 등이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대적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러시아 접근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조선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발을 고조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895년 말 상투를 자르도록 강제한 단발령의 시행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일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온 갑오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1896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고종은 단발령에 동의하지 않으며, 을미사변에 연루된 자와 갑오개혁의 주도자들을 반역자로 단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 기존 내각이 무너졌고, 김홍집을 비롯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자들이 성난 민중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 후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온 개혁조치들은 상당수가 무효로 되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중앙관제도 과거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비숍이 기행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의 전개를 좀 더 연장해서 언급하면 주지하듯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1년 만에 나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보면 자주독립의 제국이며,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갖고 입법, 행정, 군 통솔권. 외교 등 권력을 집중한 전제군주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독립협회는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부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의회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이러한 요구가 거세지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집회를 금지한 다음 발표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근대적 헌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왕권의 강화는 재정 면에서 정부재정이 위축되는 반면 궁내부의 내장원을 중심으로 하는 황실재정이 팽창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이 지향했던 바로부터 크게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고조되었고, 1904년~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한국이 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이 자주적 개혁을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데 왜 실패했는지에 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정세에 무지한 채 권력 투쟁에만 골몰했던 위정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력다툼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숍이 왕비와 고종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들에 대해 애뜻한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원군의 섭정이 끝날 즈음부터 왕비의 시해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왕비와 그 일족, 그리고 대원군 간의 피비린내 나는 반목으로 일관된다”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1864년~1873년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민비와 그 일족이 득세를 하였고, 1882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복귀하게 되자 위기에 처한 민비가 청군을 불러들여 대원군을 유폐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서울에 파병된 청군이 근대적 개혁을 시도한 갑신정변의 실패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학 농민봉기로 인한 정권의 위기로 다시 청군을 불러들였고, 그것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일본은 대원군과 민비의 뿌리 깊은 반목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앞세웠지만,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원군은 국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을미사변 때에도 일본은 대원군을 다시 입궐시켜 그가 민비의 폐위를 주도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고종이 나 시해되기 전의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고 러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권력 투쟁의 끝이 결국 주권의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조선이 왜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지체되었는지, 그로 인해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밀려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행문의 마지막 장에서 조선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숍의 진단과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언급을 다소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자원은 고갈되지 않은 채로 미개발되어 있다. 성공적인 농업을 위한 능력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 불행히도 한국 국민의 잠재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산층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중산층이 그들의 에너지를 쏟을 숙련된 직업이 없다. … 한국은 특권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모든 벌이의 불안정, 대부분의 동양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가장 나쁜 전통인 비 개혁적인 정책, 음모로 물든 공직자의 약탈행위, 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 가장 부패한 제국과의 동맹, 그리고 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이 한국을 초라하고 불품없는 모습으로 위축시켜 버렸다. 그 속에서 나의 한국에 관한 첫인상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한국의 바다에, 땅에, 간난에 견딜 수 있는 국민 속에 있음을 나는 보았다.

한국에서 아주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저주스러운 관습은 수천 명의 멀쩡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부유한 친척이나 친구들에 매달려 의존하는 악습이다. 그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고 그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없다. … 한 무리의 식객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탈출구는 관직이다. 지위가 높은 낮은 관직은 국고로 그의 식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정부 고용은 이 쓰레기 계급을 위한 자선사업과 거의 다름이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불명예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매관매직이었다. … 그들이 관직을 임명받으면 나라의 월급을 축내고 수뢰를 받는 일 이외에 할 일이 거의 없다. 나는 실제로 노동하는 땅의 경작자가 이 모든 기생충의 부양자라는 것을 싫증이 나도록 반복했다. 한국에서 농부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계급이며, 비록 원시적이지만 땅과 기후에 잘 적응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생산량을 쉽게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힐 정도로만 생산하는데 만족하고, 더 좋은 집을 세우거나 품위 있게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 명백한 절망으로 찌든 계급들이 무관심, 타성, 냉담, 생기 없는 마비 상태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비숍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전망 없는 상황에서 교육으로써, 생산계급을 보호함으로써, 부정적인 관리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관직에 실무적인 테스트를 부과함으로써, 즉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만 지불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숍의 견해는 현재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시 조선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숙고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경청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6-4

## 개항기 무역

조선은 개항으로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 5%의 협정관세가 부과되었지만, 무역에 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개항기 무역의 실태와 그것이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통계가 이 시기의 전국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통계라고 했지만, 통계작성 기관에 의해 일관된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1876년부터 개항장 무역이 시작되었으나 관세를 부과하는 해관이 1884년 설치되기까지는 조선에서 무역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개항장 무역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의 무역통계로부터 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관이 설치된 이후 조선의 무역통계는 청국의 해관 통계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국은 조선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관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청국과 조선 해관의 세무책임자가 모두 서양인이어서 이 자료는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이 자료에는 조선 무역통계가 더 이상 실리지 않게 되었지만, 조선 해관은 통계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러시아 대장성이 발간한 [한국지]에는 1883년~1997년의 무역통계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해관에서 작성된 통계와 연속하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세기 말에는 영국 영사관이 작성한 연차 보고서가 있지만, 품목이 소략하고 수량 통계가 빠져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08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조선무역연표]라는 상세한 통계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이전의 1901년~1907년간은 조선 해관의 통계를 수집하여 [조선수출입품7년대조표]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 무역통계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서 연결한 것입니다. 각 자료에서 무역액을 표시하는 화폐단위도 제각각으로 달랐습니다. 청국의 해관 통계서와 러시아의 [한국지]에 실려 있는 통계는 멕시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개항장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도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영사관 자료의 금액 통계는 파운드로 되어 있고,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 은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은화는 멕시코 은화와 거의 동등한 것으로 유통되었는데, 위조된 멕시코 은화가 많아지면서 일본 은화가 점차 주된 결제 및 회계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역통계의 상황은 당시 조선 정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무역통계는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보여줍니다. 품목별 수출액 또는 수입액을 각 수량으로 나누어 주면 수출 또는 수입의 품목별 단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 품목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본다면 품목별 단가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수입단가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 또는 수입액을 각각 수출 또는 수입단가지수로 나누면 수출 또는 수입 물량지수가 됩니다. 이것은 가격의 변화를 제거해서 무역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6-1은 이렇게 구한 조선의 수출을 일본 및 세계 평균의 추이와 비교한 것입니다. 1913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로그 눈금으로 보인 것입니다. Y축의 눈금이 한 칸 높아지면 수출 규모가 10배씩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1870년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913년까지는 세계의 무역이 꾸준히 증가한 시기였으며, Maddison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3.3%로 나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수출은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빨랐고, 조선의 수출은 시기에 따라 기복을 보였지만 일본과 다르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무역은 정체 내지 감소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수출 증가추세는 지속되었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기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크게 앞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의 규모를 GDP 대비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GDP의 추계가 1911년부터 시작되므로 그해의 수출과 수입의 대 GDP 비율인 수출 또는 수입 의존도는 각각 7%와 13%로 나왔습니다. 양자를 합친 무역의존도는 20%가 됩니다. 식민지기에 정점에 달했던 1935년의 수출 또는 수입 의존도는 33%와 32%였으므로 그에 비해 1/3에 다소 못미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개항 때 무역이 0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개항 후 35년간 무역의존도가 20% 포인트가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 시기 무역이 조선인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무역을 대표하는 품목으로서 수출에서는 쌀과 콩, 수입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았던 면직물인 생금건(生金巾)과 면사를 선정하여 그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6-2은 이들 품목의 무역량 추이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쌀과 콩의 수량은 석이고, 생금건은 천 평방야드, 면사는 천 근이며, 로그 눈금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쌀 수출은 개항기에는 그 증감의 기복이 매우 컸으며 식민지기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개항기의 쌀 수출은 미작의 풍흉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흉작 시에 쌀의 수출로 인해 쌀값이 급등하였으므로 조선의 지방관이 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방곡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쌀의 수출시장이 출현하였지만, 그 수출상품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콩은 개항기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서 쌀보다 수출량이 많았던 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민지기에 들어서면 콩의 수출량은 정체하고 점차 쌀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생금건은 기계제 면직물로서 개항 초기에는 단일 품목으로 수입액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점차 수입 직물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그 비중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수입 면직물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금건과 이보다 좀 더 거친 면직물인 시팅(sheeting)의 수입량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그 후 조선에 대규모 방직공장들이 진출하면서 감소로 돌아섰고, 1930년대에는 조선 내 생산품이 수입품을 빠르게 대체해 갔습니다. 면사의 수입도 개항기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러일전쟁 이후에는 정체되었다가 조선에 방적 공장이 늘어나면서 1930년대 중엽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그림 6-3은 상대가격과 교역조건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먼저 조선미의 수출 가격을 일본미 가격과 비교해 보면 1881년에는 일본미의 48%로 낮았지만, 이후 점차 격차가 좁혀져 1910년에는 69%에 달했습니다.



1930년대로 가면 두 지역의 미가가 거의 접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로 가면서 쌀 수출이 조선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음을 뜻하는데, 이것은 농업에서 작물의 구성이 쌀로 집중되는 미국 단작화를 촉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에는 조선미 1석당 수출 가격을 수입 생금건 100 평방야드당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1881년에 조선미 1석당 수출 가격은 5엔이고, 수입 생금건 100 평방야드당 가격은 13엔이었으므로 조선미를 1석 수출해서 생금건을 37 평방야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1900년대에는 90 평방야드로 높아졌고, 1930년대는 139 평방야드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쌀에 비해 면직물의 상대가격이 그만큼 저렴해졌음을 말합니다. 쌀과 생금건은 개별 품목인데, 이를 전체 수출 및 수입 품목으로 확대해서 본 것이 그림 6-3의 교역조건입니다. 그것은 1935년을 1로 하는 지수인데, 1870년대에 0.47에서 1900년대에 0.9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즉 이상은 개항기에 무역을 통해서 조선의 소비, 따라서 소득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수입 면직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것은 조선의 재래 직물업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컸음을 의미합니다. 재래의 면사 생산은 효율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기계제 방적업에서 생산된 수입 면사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물을 짜는 직포 부문이 살아남는 길은 저렴한 수입 면사를 이용한 원료비의 절감과 저임금의 활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직물업 재편의 방향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나타났으며,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2에서 면직물의 원료로 쓰이는 면사의 수입량 추이를 보였는데, 개항기 면사 수입의 급속한 증가는 조선에서도 재래 면직물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면사 수입은 러일전쟁 이후 정체되지만, 면직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1908년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면제품 수출은 면사가 33%, 면직물이 67%로 면직물 중심이었지만, 중국에 대한 면제품 수출은 면사가 78%, 면직물이 22%로 거꾸로 면사 중심이었다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수입 면사를 이용한 재래 직물업의 재편과 성장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래 직물업은 농촌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잔존하는 것에 그쳤으며, 조선의 면직물 시장은 일찍부터 수입 면제품에 의하여 제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품에 의거한 조선 내 면직물 소비 시장의 확대는 식민지기에 들어와 일본의 대규모 방적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수입 대체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항은 조선 경제를 세계시장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서구의 지식과 기술 또는 사상과 제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기존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는 근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갖춘 서구의 문물 앞에 더 이상 맞설 수 없었고 급속히 해체되어 갔습니다.

서구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국에 완승한 것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조선에서 개항의 충격이 컸던 것은 단순한 시장을 개방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명과는 다른 생산력이나 생활양식 또는 새로운 사상과 제도, 즉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접하고 그 사회로의 이행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대 조류에 대응하여 자주적인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데 실패하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여섯 번째 강의로 개항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제도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6**

## The Port opening Period: Bishop's travelogue

**6-1**

Korea and Her Neighbors, by Isabella Bird Bishop

Hello, class. This is Nak Nyeon Kim, with the next installment of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Welcome! It is a pleasure to see you all. This is the sixth lecture of the series. This week, we'll be discussing the opening of Korea's ports, and the travelogue of Isabella Bird Bishop.

This is the first lecture of Part 2 of the series. In this part of the course,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time, and this lesson covers the first period: the opening of the country's ports.

While in Part I, we studied material for which we have long-term statistics (that is, the 20th century and beyond), we do not have that much to go on for this period, besides trade statistics. This is because modern statistical surveys only began after colonization. Therefore, for this period, I would like to use the travelogue of Isabella Bird Bishop, hereafter just Bishop, an Englishwoman who visited Korea and traveled around the country, meticulously recording her observations, to tell the story of the situation in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is is because, as we will see later, this account is believed to have some historical value. In addition to Bishop's observations, we will use the trade statistics we do have to think about the reality of trade during this period and how it affected the economy at the time.



Isabella Bird Bishop was born in England and was a geographer. She was the author of many best-selling works, and the first woman to be elected to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is here is a photograph of her. Bishop had a hands-on approach to research and liked to travel the world. Bishop was 63 when she first visited Korea. She met Gojong, the Korean ruler at the time, and his wife Empress Min in person on several occasions, and traveled to many parts of the country in an unofficial capacity, rather than formally as a diplomat or missionary, and recorded vivid observations of the lives of Koreans she encountered on the ground.

Here I will quote the Korean translation of *Korea and Her Neighbors*, which was originally published in Great Britain in 1897. Allow me to quote the first paragraph of the preface (note to readers: this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For English-speaking readers, the following is a brief overview of Bishop's thoughts on Joseon.

"Between the winter of 1894 and the spring of 1897, I made four trips to Korea. Traveling to Korea was part of an academic plan to study the country, its geography, and the ethnic characteristics of the Mongoloid peoples. When I first visited Korea, I was under the impression that it was the least interesting country I had ever traveled to. However, I soon became very interested in the political unrest, rapid change, and unknown fate of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lso, seeing the state of Korean migrants under the Russian government in Siberia opened my eyes to even greater possibilities for the country in the future. Anyone who has stayed in Korea knows that the country, without exception, has an intense charm that can make one forget the initial stinging impression."



It's not hard to imagine how difficult it would have been for a foreigner to write about Joseon at the time. Mostly because there were a limited amount of reliable historical references upon which to base one's judgment. Bishop wrote as follows: "My original purpose was to accurately research and show Korea, and I dare say I did everything I could to accomplish this goal. I interviewed almost every European who was living in Korea during this time."

This suggests that Bishop was not only looking to observe local Korean life firsthand but also to broadly reflect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missionaries and diplomats who had already been to Korea. There are a lot of descriptions tha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keen insight and thorough exploration. Cases in point: descriptions of marriages and funerals, as well as of shamanist and spiritual rituals. Bishop adds: "I described some customs in detail with the intention of preserving the ways, rituals, and ceremonies that are destined to disappear by putting them down on paper." The descriptions give us a sense of the meanings people at the time ascribed to marriages and funerals, and what their attitudes were toward spirits and superstitions.

Furthermore, the Bishop's description of the Eulmi incident, in which the Japanese assassinated Empress Min, is especially detailed. This is because it was based on Bishop's first-hand observation of the proceedings and verdict of the trial that took place in Hiroshima, Japan, over the incident.

In addition to Bishop's own observations, the travelogue also reflects how Europeans perceived Joseon and its people at the time, as well as the thoughts of locals about their customs and culture. I think this firsthand experience deepened Bishop's understanding of Korea.



Moreover, the immediacy of her account makes it valuable as a historical document. In the preface, she states: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Korea, I was unable to record my travel experiences through letters, as I did in Japan. Instead, I chose to record them carefully in notebooks. The notes were gradually revised over time as I made more and more observations about Korea."

In other words, she took careful notes of her observations on the spot, and the descriptions were based on those observations. I think the scenes reflecting on-the-spot observations were more vivid than the ones written in retrospect.

Moreover, I believe the observer's point of view is important in travelogues. If a local who lived at the time had written the account, I suspect that what seems unusual from our perspective would have been familiar to them, and would not have been noticed or recorded. I think the perspective of Koreans living in the present is closer to that of a foreigner like Bishop than it is of their ancestors who lived four or five generations earlier.

This is because Bishop, who lived in England in the late 19th century, had already experienced a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her perception of the modern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Koreans of today. In other word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Bishop and present-day Koreans in terms of how they view society, so I think this travelogue is like a time capsule that gives us a glimpse into the reality of Joseon 125 years ago through Bishop's eyes.

However, since Bishop was British, her views can be problematically orientalist. Orientalism is the view that Eastern culture and values are inferior to those of the West. There are elements of the travelogue that reflect this thinking. However, as her understanding of Korea deepens, we can see her affection for Korea growing. She wrote the following as she was leaving Korea:





"It is with great regret that I left Korea as Russia and Japan were at odds over its fate. The dislike I first felt for the country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n interest, almost an affection. In none of my previous travels have I made loving and kind friends with whom I have parted more regretfully than in Korea."

Another is that Bishop was more favorable to Japan than to Russia or China, which may have reflected Britain's diplomatic pos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time. In light of Japan's later ambitions, it could be argued that she ended up defending Japan. But it's hard to attribute that solely to Bishop's bias.

In the final chapter of the travelogue, Bishop sees two things as essential to a better future for Joseon. One was that the monarch's power had to be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the constitution, and the other was that Joseon would inevitably need outside help to reform itself. This is because there was no visible force within Joseon that could implement the necessary reforms.

Bishop fears that the country will eventually have no choice but to look to Japan for the outside help it needs, noting that "sadly, Japan's ambition to ultimately turn Korea into a protectorate is clearly felt."

I believe that Bishop's somewhat ambiguous outlook on Joseon reflected the dilemmas facing the country at the time. The country's fortunes were in the balance, but there were no forces from within capable of effective change, and the neighbors to whom it could turn for help all had their own ambition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6-2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Bishop's journals are filled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natural beauty she encountered and the people she met, but here we'll focus on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at she described.

First, we will look at how people got around during this period. Bishop traveled by ship from Nagasaki, Japan, to Busan. It took three days by boat to travel from Busan to Jemulpo, and later from Wonsan back to Busan. The ships were all operated by a Japanese shipping company called Japan Mail and Shipping.

Until 1884, a ship sailed from Nagasaki to Vladivostok via Busan once every five weeks, and a ship from Busan to Jemulpo once a month. But by the time Bishop had arrived in Korea, she noted that steamers large and small were arriving in Busan every day.

This is a picture of the harbor at Jemulpo, taken by Bishop herself. Bishop carried a camera during her travels. The camera and main photographic device weighed 7.3 kilograms. A separate hand camera and its accompanying apparatus weighed 1.8 kilograms.

When Bishop arrived in Jemulpo, she was unable to travel by ship to Seoul. There was some discussion of setting up a steam ferry between Jemulpo and Mapo, but due to shallow water in places along the route, this idea was abandoned. The first railroad, the Gyeongin Line, had not yet opened. The British consulate general escorted her to Jemulpo, and then Bishop traveled to Seoul in a six-man palanquin. The journey took seven hours.



The consulate general traveled on a stagecoach driven by a pony. The path often led through deep mud puddles, and they were often forced to travel around them. Later, Bishop traveled up the Han River to visit villages along its southern and northern tributaries, which she did by raft. I will directly quote Bishop's description of the country roads she traveled on.

"Riding a horse or trudging along, or in either case not being able to cover more than 4.8 kilometers in an hour, Korea's roads are rarely named. There are very few man-made roads, so the roads are dusty in the summer and slushy in the winter; nor are they cleaned or repaired, so the surface is very bumpy and full of jagged rocks. For the most part, these are paths that had been trodden by horse and human traffic and at some point were recognized as roads. ... many creeks have no bridges, and when they do, these bridges are often just tangles of branches on a log. ... Even "6th Avenue," which runs through the center of Seoul, is in such poor condition that the coachman has to get off his horse and walk three or four steps ahead to make sure the bridge can support his weight. ... In my extensive experience, transportation is a major impediment to South Korea's development."

Bishop first stepped foot on Korean soil at an expatriate settlement at the newly-opened port of Busan. Here is Bishop's description.

"It's quite a beautiful town, with important consulates, banks, many Japanese shops and a variety of English or Japanese houses squeezed between the hills and the sea. There were solid retaining walls and embankments, and the roads were built at the expense of the local authorities and equipped with drainage and lighting. A public waterworks had been built using funds raised by collecting 100 poon (a unit of currency at the time) from each household. People are now hoping that the abundant supply of clean water will end the frequent cholera outbreaks. Of particular note was the rapidly-filling Japanese military cemetery above the city."



"In a way, Busan is a Japanese neighborhood. In addition to the permanent population of 5,508 Japanese, there is a floating population of 8,000 Japanese fishermen. The Japanese Consulate General is housed in a stylish European-style house.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e the First Bank of Japan, and there was also a postal and telegraph servic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The Japanese not only kept their homes clean, but they also brought new industries to Korea. These include mechanical threshing and milling, whaling, and the manufacture of fishmeal fertilizer."

The old city of Busan, where Koreans lived, was in sharp contrast to the new city, where foreigners lived. According to Bishop's description, "The narrow streets of the old city of Busan were filled with shabby, windowless huts, with mud walls and deep eaves of straw roofs. Every wall had a black smoke hole that served as a chimney about 60 centimeters above the ground. Outside these huts were irregular ditches where solid and liquid waste had been dumped. ... Along the narrow, dusty, winding streets, goods lay in piles on the ground. ... There was a lot of haggling, and a lot of time was wasted on haggling, and when things were sold, they were often worth less than a tenth of the original price."

The contrast between foreigners and Koreans in Busan was no different at the newly-opened ports of Jemulpo and Wonsan. Allow me to quote Bishop at length on Jemulpo.

"The Japanese settlement occupies almost the whole of the main road to Seoul, and the Korean village lies outside of it. A road climbs from up a hill on which the English church stands, and every rocky outcrop that can be reached by the dirty paths is crammed with Koreans."





"The 6,700 inhabitants of the city, or more precisely, the men, or half of the city, were always on the move. The narrow streets are filled with people who are always on the move and seemingly doing nothing. The place is not unlike the old town of Busan, except that there are permanent shops with a stock of goods ranging in price from one dollar to twenty dollars at most. I spent over an hour haggling over a small transaction, but they seem to stay in business. In the foreign settlements, the Koreans are chiefly employed as porters, and seem to make their living by carrying immense loads on their backs using wooden carriers."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residences at the opened ports was based on the unequal treaties that Joseon signed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Japan. I want to explain some of these treaties' relevant provisions briefly.

First,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as it is known in Korea, signed by the Joseon government with Japan in 1876 opened up the ports of Busan, and later Jemulpo and Wonsan to Japan. The treaty called for Joseon to allow the free passage of Japanese people, permit Japanese trade, and allow for the circulation of Japanese currency within a range of 10 ri (a measure of the distance of the time) east, west, and north of the pier. The treaty also allowed the Japanese to lease land and build houses.

In addition, if a Japanese person committed a crime in the area around the port and was brought to trial, they would be tried under Japanese law. This was called "consular jurisdiction." It was a form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within Joseon. The treaty can be seen as an unequal one in many ways, as Joseon's sovereignty was restricted.

As we have seen, it is due to the clauses of the treaty that the foreign residents of the port were overwhelmingly Japanese,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municipalities and the formation of a "Little Japan." Bishop's visit took place 20 years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and the contrast between the foreign settlement and the old Korean society was evident.



The Joseon-Qing Communication and Commerce Rules agreement signed in 1882 was an even more unequal treaty. When the 1882 Imo Rebellion threatened to topple the Min Dynasty, Joseon queen Min asked the Chinese Qing Dynasty for support. A treaty was signed between Joseon and Qing when Qing was ascendant. The treaty stated that Joseon was a vassal state of the Qing.

In addition, the treaty granted even mor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o the Qing than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had granted to the Japanese; Qing merchants were allowed to trade in Yanghwa-jin and Seoul in addition to the newly-opened port. This gave Qing merchants an advantage in trade, and intensified competition with the Japanese merchants, despite the latter's head start.

This treaty would be annulled when the Qing Empire lost the Sino-Japanese War. Other trade treaties were signed with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which largely carried over the unequal terms of the earlier unequal treaties.

Now, let us return to Bishop's travelogue. Let's look at some of the photos Bishop took in Seoul. Photo 3 is a photo of Namdaemun. To the left and right, you can see thatched straw huts. Photo 4 shows the Gwanghwamun neighborhood in Seoul. You can see Gwanghwamun in the center of the photo and Gyeongbokgung Palace on the left. You can see that the neighborhood is made up of tiled-roof houses.

For comparison, Photo 5 shows a street in the south of Seoul, featuring houses with thatched straw roofs and tiled roofs lining both sides of the street, with people coming and going. Photo 6 shows a street stall selling trifles.

One of the problems Bishop encountered on her travels was the currency used in the hinterlands. At the ports or in Seoul, Japanese yen or US dollars could be used as exchange. But further inland, these currencies were not accepted. After 50 days in Seoul, Bishop began her journey up the Han River by boat.



After more than a month of exploring the Han tributaries, Bishop headed overland to Wonsan via Mount Kumgang. Let me quote Bishop on currencies.

"I was induced to take up a plan only with considerable apprehension to address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money which afflict all travelers to the inland provinces. The Japanese yen and its denominations were in circulation only in Seoul and at the ports of entry, and there were no banks or money-changers anywhere in the interior, so only cash was in circulation. At the time, the Korean currency was nominally worth 3,200 poon to the dollar. These coins were strung on straw strings by the hundreds, making counting them, carrying them, and paying for goods or services with them cumbersome. It takes six men or a pony to carry 100 yen worth of cash; yet this sum comes to a mere ten pounds sterling."

When she refers to cash, she is speaking of coins. A contemporary analogy: Imagine taking a trip that costs thousands of dollars, but you have to pay for it in pennies.

Photo 7 is a picture of Bishop's travel party. We can see that they traveled by horse. Horses also carried Bishop's luggage. Photo 8 shows the raft that Bishop's party took up the Han River. These rafts could not carry horses, and the coins the party was carrying filled their small holds.

At the time, foreign travelers were required to have on their person at all times a letter granting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Affairs to travel to the interior of the country. This letter could only be procured through the consulate. Upon presenting this letter to local officials, travelers were to be provided various benefits, such as food, transportation, and money by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outside Seoul were often not reimbur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services they provided to foreigners and greatly disapproved of the scheme. However, Bishop did not possess such a letter, and thus had no way of accessing these privileges. Thus, she ended up carrying all these coins on the floor of the raft during her travels.

By the time she got to Danyang after traveling on the Namhang River, she had run out of currency. She tried to exchange silver coins she had brought along for the local coinage, but no one believed in the value of silver. A day wasted, she was forced to return to Seoul to exchange them. Fortunately, she was able to exchange 70 silver coins for around 6,000 units of the local currency at a horse trading market near Jecheon. She hired six men to carry the coins to the raft and refill the hold.

However, the situation seems to have varied by time and region. After the outbreak of the Qing-Japanese War, Bishop left Joseon and traveled to various parts of China, then Japan, before returning to Joseon in the winter of 1895. In the course of her exploration of the northwestern areas of Joseon, including Pyeongyang, she makes the following remarks about currency.

"Under Japanese influence, the yen, which was made of silver, was slowly penetrating the interior of the Korean economy, to the point that I had never even seen a specimen of the newly minted Korean coinage. I was able to use the large Japanese silver coins that were readily accepted at all inns, without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carry a load of coins as I had done on my previous trips, or of being unable to exchange the coins back for yen."

As Japan's political influence expand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so did the circulation of the yen in Korea. Bishop makes several references to the fact that commerce was not yet developed in Joseon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country. First, let's examine a description of a store in Seoul.





"Shops are also a big part of what makes Seoul feel shabby. The entire inventory of any given store in Seoul would be worth no more than six dollars. ... I once went to the largest stall in Seoul, next to Jonggak. All the products in the stall amounted to no more than an armful. If you walk down one of Seoul's three major boulevards, you'll see two rows of street stalls, often on carts, lining the streets. ... Here are 22 important Korean commodities that are traded in these and other stores. Cotton cloth, straw shoes, saucers, ceramics, candlesticks, combs, glass beads, cigarettes, tobacco wrappers, spittoons, horn-rimmed glasses,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wooden pillows, fans, ink bottles, saddles, washing bats, dried persimmons, candies, seaweed, mushrooms, etc. Elsewhere, there's a perfunctory, crude collection of foreign imports of lowbrow European taste. Sixpenny kerosene, a hand mirror, and a shiny bowl. ... Plain brass dinnerware and other brass items are being made, and woodwork with black lacquer is often sold with traditional patterns made from seashells and glued on. There are also products that are embroidered with gold thread on silk, but the design is rough and the colors are often dull. ... and foreigners call the street where the British mission is located the "Street of Long Robes." The armoires here are quite fine, despite being relatively small in size. These products are extremely colorful despite being thoroughly Korean."

There were permanent shops in Seoul, but if you went to the provinces, there was no trading, except in the market every five days. For example, for the marketplace in Bongsan, on the Yellow Sea, the bishop lists almost all the goods traded. Here is her description.



"There were no shops in the village, and if there were, they were few and far between. Since no one was storing goods, it was virtually impossible to buy anything except on market days. Normally sleepy, stuffy towns are transformed on market days. It gets loud and raucous, and covered in waves of people. From early in the morning, the roads to the officially designated marketplace are filled with farmers selling and bartering. ... On the great road beside it, the peddlers go, carrying heavy loads themselves, or with goods loaded on porters or oxen. ... Some people set up stalls and sell silk, fabric, pumpkins, waistbands, buttons, small mirrors, cigarette wrappers, colored glasses, etc. But large quantities of necessities and luxuries are mostly displayed on low tables or mats placed on the ground, a privilege for which the merchant must pay the landlord before setting the fixtures."

Bishop goes on and on, thoroughly describing everything being bought and sold throughout the chapter. She also added descriptions of each item sold, but here, we will just list the items.

These were: sesame-studded rice cakes, candy, shirting fabric from Japan and England, burlap, red cotton from Turkey, thin silk, dyes such as aniline and saffron indigo, matches, wooden combs, metal hairpins, money purses, paper from Jeolla, straw mats, flint, hats made of linen, straw, or reeds, crude and thin cotton garments made domestically, horse bits, wooden clogs, ironware such as pots, spades, doorknobs, nails, and crocks used for various purposes, raincoats, blotting paper, hoods, chili powder, rice, peas, and tofu.

This shows what items farmers were able to purchase at the market. Some of these goods were sold by the farmers themselves, but most were sold by petty merchants. A wide variety of goods were traded at the market, including cotton and sundries from Japan and England, suggesting that imports were also consumed through rural markets. However, it appears that trading volumes at these markets were not very high.



After listing the items of trade, Bishop's description reads, "Trade was very slow, and the assembled people were generally as silent as the placid oxen that stood among them for hours. Late in the afternoon the peddlers packed up their wares and set out for the next market." It's tempting to speculate that other regions that went unobserved by Bishop may have been home to more lively markets and brisk trade.

"The house at which I stayed was frequented by merchants who were clients of the landlord's brokerage business, and entertainment was a daily occurrence. Mr. Lee, a bureaucrat who had acted as interpreter in my company, was invited to dinner every day, and on the last evening, all those who accompanied him were entertained. The cost of food per person at that meal was equal to the cost of a dinner at the Saint Restaurant! Noise is an integral part of these gatherings. The men shout at the top of their lungs." This quote is from a visit to Pyongyang, where the volume of the merchants' chatter surprised even Bishop.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merchants at the stores in Seoul or the rural markets to afford the kind of costs incurred by the merchants and the landlord in Pyongyang.

References to Joseon's agricultural systems and peasantry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text. First, I will quote a passage that mentions the inhabitants of the Han River basin and describes agriculture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inhabitants are literally farmers, most of them renting land from the landowner, who has the right to evict them after the harvest, but this right does not seem to be exercised oppressively. The landowner provides the seed, and the farmer pays the landowner half of the harvest. Some people bought land and obtained title deeds. In 1894 a tax was levied on farmers equal to the amount of land they could cultivate in a day. They were also compelled to pay a tax on barley, beans, rice, and cotton, the yields of which fluctuated. ... Money is seldom in circulation, and transactions are carried on through bartering, or the farmers pay with their labor. The most important expenditure of the farmers is the purchase of foreign cotton to make good clothing. In Yeongwol, which is well known as the terminus of the inland waterways, this cotton sells for 30 won per 50 centimeters, a higher price than in Seoul."

"During my land trip from Jangansa to Wonsan, I had a much better opportunity to observe Korean agriculture than I was afforded on the banks of the Han River. Compared to the neatness and tidiness of Japan and the diligence and thriftiness of China, Korean agriculture is somewhat reckless and disorganized. There was still weeding to do in the summer, and rocks were left in the field. The fields and their banks were uneven, and the stone walls of the unsightly farmhouses were in bad disrepair. The narrow paths through the fields were overgrown with weeds and the furrows through the rice paddies were not straight. But overall, the crops were in good shape and most of them were healthier than I expected. There was very little livestock, and it was noteworthy that the land was fertile enough to be used with little fertilizer except in areas around Seoul or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Bishop traveled to Japan and China during the same time period, so she was able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e in comparison. The area Bishop explored in Joseon was the area around the Namhan and Bukhan tributaries of the Han Rivers and the area from there to Wonsan, as well as the northwestern provinces of Hwanghae and Pyeongan. It is unfortunate that the rural areas of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are missing from the travelogue.





There are many descriptions of the tenant farmers, gentry, and officials who lived in the areas she visited. Among them, she harshly criticizes the yangban aristocrats and officials, calling them the "parasites" of Korean society. This is how she describes her visit to Yeoju: "Within its walls were parasites sucking the life force out of Korea. There were soldiers, prisoners, scribes, dishonest officials, and messengers who always pretended that their hands were full, with Tyrolean hats on their heads and crude cotton titles of blue as the predominant color, and in many small rooms, still more people sitting in groups on the floor, with calligraphy tools beside them, smoking out of long bamboo sticks."

"I heard that there are many 'high gentlemen' in Yeoju, but it seemed that the local governor of a town with only 700 households was naturally not a very high position. When the provincial officers came, they spoke in low tones and gave orders as speaking to their servants. The provincial governor, who would live primarily in Seoul, occasionally descended on his post, a vast ruin with a few carefully-decorated buildings, to work and share in the plunder. In the end, these yangban do whatever they want. And this is not the only place where we see this. Almost all district officials near the river are absent and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capital, squeezing out taxes. I had similar interviews with three other district officers. I didn't do anything except ask to exchange three yen. And each time, I was told that the safe was empty."

I wonder if this negative portrayal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as reinforced by their unkindness to the Bishop. But not all of the events described there can be attributed to Bishop's own observations; her recollections may be influenced by the perceptions of missionaries and diplomats in Joseon whom she met.

Bishop's perception of the peasantry is captured in the following.



"If poverty is understood to mean a lack of the necessities of life, then the inhabitants of the valleys along the banks of the Han River are by no means poor. People have more than enough of the necessities for themselves and, according to Korean custom, for the wayfarers who may ask them for hospitality. They all seem to be debt; it is rare to find a Korean who doesn't have the yoke of debt around their neck. In other words, they are lacking in money or property, rather than the absolute necessities of life. They looked idle. I really thought they were. But that's because they were living in a system where their hard-earned property was not protected at all. For example, if a person was known to have made money, or even to have bought a luxury item, such as brass tableware, this would come to the attention of a nearby greedy official or his henchman; or they would be pressured to repay a loan from a nearby gentleman. Nevertheless, the peasant farmers on the banks of the Han River seemed to be enjoying real comfort."

In addition to the economy, Bishop was also very interested in the customs and rituals of the Koreans. Bishop writes about Korean shamanism, and Koreans' beliefs regarding spirits and superstitions extensively. For example, she thoroughly investigates and describes the genealogy and hierarchy of the spirits worshipped by the Joseon people at the time, as well as rituals used by shamans or geomancers to exorcise demons. I will quote the relevant part.



"Koreans believe that the sky, the earth, the stars, the air, the mountains, the rivers, and the sea are full of spirits." Moreover, spirits inhabit shade trees, ravines, springs, and mountain ridges. On green hillsides, in peaceful valleys where farming is practiced, in grassy valleys, on wooded heights, beside roads and rivers, and even in the east, west, and north, spirits are believed to be ubiquitous, and gain some small comfort in causing mischief over the fate of men. And the spirits are everywhere, in roofs, ceilings, hearths, light and stone. They fill chimneys and barns and floors and kitchens. ... This polytheism seems to be an effect of an environment in which nature is relatively less inhospitable, and so they exhibit a strong tendency to bargain with it, and to assimilate it emotionally, rather than objectify it."

"This belief held by Koreans keeps them permanently in a state of timid anxiety. ... The lives of spirits affect Koreans in every way, forcing them to continue appeasing them in order to maintain their wealth. And since the spirits retaliate with unrelenting calamities when their worship is shirked, Koreans are forced to remain in slavish submission to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in dealings with spirits, it is not merely a matter of ceremony. Bishop: "Calling a shaman is expensive. The shaman business is said to cost the people 220 million dollars a year! It is believed that when people want to gain the favor of the spirits or avoid bad luck, it is essential to hire a shaman as an intermediary. It is not the offerings made in rituals or the temporal power of the shaman that oppresses the people, but the cost of hiring him."

These shamanistic beliefs dominated the consciousness of all women and the vast majority of men, from royalty to the poor, thatched hut-dwelling lower classes, with the sole exception being the literate few who instead performed ancestor worship.



Bishop's perception of the Koreans changes dramatically when she visits a Korean settlement in Siberia. She traveled to Russian Manchuria to investigate what conditions were like for the estimated 20,000 Koreans there.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observe how life might change for Koreans when they are under a government other than their own. It is like conducting an experiment with the system we talked about in the Week 1 lecture.

Beginning in the 1860s, migration of starving Koreans across the border from Hamgyongdo began, with 16,000 to 18,000 settlers centered in Primorsky, which was essentially a wilderness. Koreans who had migrated before 1884 were able to claim Russian citizenship, and established an autonomous enclave, with officials in the region chosen from among Koreans. Here is Bishop's description of them.

"The Korean men here don't have that distinctive lanky look that the men back home have. The suspicion, indolent pride and slavish dependence on those who are better than you that characterized indigenous Koreans have been replaced by a sense of agency and independence, a rather British toughness, rather than an Asian one. Vigorous labor has replaced the arrogance of the yangban and the dejected idleness of the farmer.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to make money and no exploitation by mandarins or the gentry. Comfort and any form of wealth were no longer subject to extortion by officials."

"When I was in Korea, I often wondered if Koreans were the most inferior people in the world and considered their situation hopeless. However, here in Primorsky, I have found good reasons to revise my view. The Koreans here became prosperous farmers, hardworking people of good behavior and excellent character. I had to keep in mind that they would not have been equally diligent and frugal if they were in Korea. They were mostly just refugees fleeing a famine. Their prosperity and character gave me faith that the people who remained in Korea could slowly develop into 'citizen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f only they could protect their livelihoods under an honest government."





This shows that Bishop in the late 19th century realized exactly what is at the heart of modern institutional economics, which we discussed in the Week 1 lecture: institutions that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centivize individual effort lead to economic growth. This is not just theoretical. We see here that such a argument is based on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in which Bishop compar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wo groups of Koreans living under different systems.

One thing I would add is that Bishop never felt any anxiety that she might encounter highwaymen or thieves, and have her possessions stolen as she traveled the country. The quote below refers to the impressions of her time in and around Seoul: "I would like to add that there is no city in Europe that is so well policed as Seoul, where women can walk around freely without being escorted by a man. This is something I realized myself when I walked around everywhere outside the city walls without encountering the slightest incident."

As she traveled around the provinces, Bishop complained about some of the natives being rude or making her feel uncomfortable with their excessive curiosity, but she did not worry about security. Contrast this with the Bishop's encounter with bandits in Manchuria, where she was robbed of her valuables. Even today, Seoul is said to be one of the best-policed cities in the world. I think it is noteworthy that this element of Joseon society has lasted for well over 100 years now.



### 6-3

### Turbulent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tbacks to reform efforts

The period of Bishop's visit, from February 1894 to January 1897, was a time of tumult i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Much of this is already known from historical research. So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rehash the relevant details here. But we should summarize the broad strokes of events during this time, and then briefly examine Bishop's parting words.

When Bishop first arrived in Korea,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d just broken out, and when Jinju Castle was captured by the peasant army, the crown prince, sensing the crisis, again requested that the Qing in China deploy troops to quell the rebellion. This prompted Japan to send troops as well, leading to the outbreak of the Qing-Japanese War in Korea in June of that year. By this time, Japanese troops had occupied Seoul, and under their influence, a reformist government took over, and over the next 19 months, the Gabo Reforms were implemented.

To mention a few, the central government was reorganized, making the State Council of Joseon, or Uijeongbu, the mai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with eight ministries under its umbrella. The royal household was separated from the State Council to prevent it from meddling in its affairs. Other measures included the abolition of the old civil service exam, called the gwageo, and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hiring new officials, a new requirement to pay taxes in cash, the implementation of a silver standard, the unification of measuring systems,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agency,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military bureaucracy, the abolition of the aristocracy and the caste system, and the prohibition of child marriage. Widows were also allowed to return to their homes.



These can be characterized as pan-sectoral, moder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to institutions across society. It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demand for reform within Joseon, which was expressed through the 1884 Gapsin Coup or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ut these reforms were heavily promoted by the Japanese and thus were hit-and-miss in terms of implementation and success. Vested interests, including the Joseon royal family, were strongly opposed to them, for example.

Japan'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ended Qing influence in Korea. However, Japan took for itself the Liaotung peninsula through the Treaty of Simonoseki signed with the Qing after the war. It was only after Russia, Germany, and France pressured Japan to return the peninsula to the Chinese that it relinquished its claim to the land. This series of events is referred to as the Triple Intervention. It led to a confrontation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Gojong and Empress Min approached Russia to keep Japan in check.

At the time, it was still too early for Japan to confront Russia, but it nonetheless wanted to keep Joseon out of Russia's sphere of influence. To do so, it staged the Eulmi Incident, which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Joseon queen. This sparked a backlash against Japan in Joseon. Furthermore, an ordinance related to the Gabo Reforms was promulgated in late 1895 that forced Joseon men to cut their top knots. It was met with fierce resistance, leading to a backlash against the Gabo Reforms, which had been promoted and subsidized by the Japanese.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King Gojong took refuge in the Russian legation in February 1896. Gojong condemned the top knot ordinance and declared that those involved in the Eulmi Incident and those behind the Gabo Reforms would be branded as traitors and punished.



This led to the collapse of the cabinet, and the murder of Kim Hong-jip, who was Prime Minister during the period of the Gabo Reforms, as well as other leaders associated with the reforms, by an angry mob. Afterward, many of the Gabo Reforms were rolled back. The central governing bureaucracy, which was constituted to limit royal power, was dissolved. It is this time that Bishop covers in her travelogue.

To extend the story a bit further, as you may recall, Gojong left the Russian mission within a year and proclaimed a new Korean Empire in 1897.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 the Empire of Korea w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empire, with the emperor having unfettered power over the military, the laws, foreign affairs, and the executive functions of government. In other words, it was an absolutist monarchy. Prior to this, the Independence Club organized a council in 1898 called the People's Assembly to oppose a government dependent on Russia, resist Russian usurpation of Korean interests, and to demand the establishment of a parliament.

This announcement by the Independence Club came after the Korean Empire ordered the Club to disband and banned its rallies in response to its calls for reform.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pire was far from modern, as it lacked provisions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olidation of royal power was made manifest in the deteriorating financi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even as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imperial place grew markedly.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Empire took a major step backward from the aims of the Gabo Reforms.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and Russia subsequently clashed over control of Korea, and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resulted in its colonization of Korea.

As for why Korea failed to establish a modern nation through self-reform...this question requires thorough reflection. First of all, I don't think the administrators and officials, who were ignorant of world affairs and focused their energies on internal power struggles, can escape blame.





And their struggle for power goes back even further. Bishop had met the queen and Gojong on several occasions and had feelings of affectionate compassion for them. But she describe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time as follows.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the end of Daewongun's regency to the queen's death is characterized by bloody antagonism between the queen, her clan, and Daewongun."

The queen Min and her clan rose to power at the end of Daewongun's regency from 1864 to 1873, and when the Imo Rebellion of 1882 brought Daewongun back to power, the crisis-ridden queen Min called in the Qing army to debilitate Daewongun.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the Qing army deployed to Seoul, which led to the failed Gapsin Coup, an attempt at modern reform. The regime crisis caus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rought the Qing army back into the country. This was the trigger for the Sino-Japanese War. Japan wanted to capitalize on the deep-seated antagonism between Daewongun and the queen.

When the Japanese occupied Gyeongbokgung Palace in June 1894,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y used Daewongun to keep contain the queen. But in promoting the Gabo Reforms, Daewongun was excluded from the domestic affairs of the state. Even during the Eulmi Incident, the Japanese sent Daewongun to the royal court and made it look like he was responsible for the abdication of the queen. It was after this that Gojon and Min, prior to her murder, tried to enlist the help of Russia, which led to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denouement of a power struggle that brought in foreign powers eventually led to the loss of Korean sovereignty.

More fundamentally, I think we need to ask why Joseon was so slow to develop into a modern society, and therefore unable to cope with the influx of Western culture and ideas. In this regard, I will quote, albeit at some length, from the last chapter of the Travels, which is Bishop's diagnosis of and prescription for the problems of Joseon society.



"South Korea is not a poor country. Resources are not depleted, but undeveloped. The capacity for successful agriculture is largely untapped. ... Unfortunately, the potential energy of the Korean people is not being used. There are no opportunities for the middle class. There are no skilled jobs for the middle class to put their energy into. ...The exploitation of the unprivileged by the privileged classes, draconian taxation by public offices, a total absence of justice, the insecurity of all earnings, the unreformed policies of the worst tradition upon which most Eastern governments are based, the plunderous conduct of public officials tinged with intrigue, a weak monarch living an idle life in a palace with his concubines at his side, alliances with the most corrupt empires, and the superstitions which prevail and which drive the people into the crucible of terror, have reduced the country to a shabby and unsightly condition. It was there that my first impression of Korea was formed, and yet I saw that hope lies in the sea, in the land, and in the people who can endure hardship.

A very serious and universally-cursed custom in Korea is how thousands of non-disabled people are forced to rely on relatives or acquaintances who are wealthier than them. There is no shame in it, and no public opinion condemns it. ... One way out of this relationship for someone with a bunch of mouths to feed is a government job. A government job, whether high or low in status, paves the way for the state treasury to put food on the table. ... Government employment is little more than charity for this class of scum. It's what has dishonored Korea for so many years. ... When they are appointed to a government position, they have little to do other than rake in the country's paychecks and take favors. I repeated to myself that the tiller of the land, the one who actually works, is the provider for all these parasites. Farmers are the hardest working class in Korea, and although they are primitive, they can easily multiply the output of their labor by adapting to the land and climate. But since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ir profits will be safeguarded, they are content to produce just enough to feed and clothe their families, and do not seek to build better houses or dress with dignity. ... It is not surprising that a class steeped in apparent despair should sink into a state of indifference, otherness, apathy, and lifeless paralysis."



And as a prescription for that, Bishop argues as follows: "Korea must build a new nation out of this dire situation by educating, by protecting the productive class, by punishing corrupt officials, and by imposing practical tests on all government jobs - in other words, by paying only for what is actually done."

I think Bishop's views are worth listening to because they are the result of first-hand observations and reflection as she traveled through the nooks and crannies of Joseon at the time, with a modern perspective that can be shared with us today.



#### 6-4 Trade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With the opening of its ports, Joseon entered the era of free trade. A five percent customs duty was imposed on imports, but otherwise, trade was not regulated. Here, we will consider the conditions of trade during the opening period and how it affecte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untry.

Although trade statistics are said to represent the only data capable of illustrating a pi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during this period, they were not compiled in a consistent manner by the organizations that produced them.

Although open-port trade began in 1876, there was no institution to compile trade statistics in Joseon until 1884, when a customs office was established to levy tariffs. Since Japan had a near monopoly on open-port trade during this period, we can work backward using Japanese trade statistics.

In addition, trade statistics for Jose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a route between Joseon and Qing are included as an appendix to the Qing government's data on seaborne trade. The data was published in English because the Qing Empire had taken control of the shipping lines in exchange for loans to Joseon, and because both the Qing and Joseon tax collectors were Westerners.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the Qing source has no more data on Joseon trade. The Russian Ministry of the Treasury published a regular magazine on Korean affairs that contains trade statistics from 1883-1997.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tatistics produced by the Joseon customs office.





In addition, there are annual reports produced by the British Consulat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wever, these are of limited usefulness, as they contain only a rough outline of what specific goods were traded, and many data are omitted entirel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from 1908 to 1941 published a detailed statistical publication on trade that could be roughly translated as the Joseon Trade Chronicle every year. Trade statistics collected from the Joseon customs office from 1901 to 1907 were also gathered and published as Joseon Export and Import Seven-Year Survey.

As described above, trade statistics from this period are compiled from a number of scattered sources. Each source also had a different monetary unit for denominating trade value. The statistics in the Qing government's maritime statistics and in Russia's periodical on Korea are denominated in Mexican Silver Dollars, which were in wide circulation in Joseon, China, and other parts of Southeast Asia at the time.

Monetary statistics from the British Consulate are in pounds, while those from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are in Japanese silver. Note that Japanese silver circulated as roughly equivalent to Mexican silver, but as counterfeit Mexican silver became more common, Japanese silver gradually became the primary means of exchange for payment and accounting. I think this situation with trade statistics is symbolic of the failures of the Joseon government at the time.

These trade statistics show quantities and value by item. By dividing the value of exports or imports by their respective quantities,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unit price per item of exports or imports. And by weighing each item by its share of the trade value, the unit price per item can be used to produce an export or import unit price index. We can then divide the export or import amount by the export or import unit index, respectively, to get the export or import volume index. This shows how fast trade actually grew by accounting for changes in price.



Figure 6-1 compares these exports to those of Japan and the world average. This is a logarithmic scale of the index, with 1913 as 100. It shows that a one-digit increase on the Y-axis represents a tenfold increase in export volume, and the higher the slope of the graph, the higher the rate of increase. The period from 1870 to 1913, before World War I, was a time of steady growth in global trade, with export growth averaging 3.3 percent per year, according to the Maddison database.

During this period, Japan's exports grew considerably faster than the world average, and Korea's exports grew at a rate not unlike Japan's, although they fluctuated over time. While global trade stagnated or declined after World War I, Korea's exports continued to grow, especially during World War I, when they significantly outpaced those of Japan.



We can also gauge the scale of trade as a percentage of GDP. Since we can trace GDP back to 1911, we can calculate export and import dependence, or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DP, for that year. The results were seven and 13 percent, respectively. The combined trade dependence of the two would be 20 percent. At its colonial peak in 1935, dependence on exports and imports was 33 and 32 percent, respectively, or a little less than a third. However, we can assume that trade was zero when the ports were first opened, which means that trade dependence increased by 20 percentage points in the 35 years after the opening of Joseon's ports.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trade really began to impact the lives of Koreans. Let's take a more specific look at this trend by selecting the most representative items of trade during this period: rice and soybeans for exports, and cotton cloth and cotton yarn for imports. Figure 6-2 shows trends in trade volumes for these items. From there, the quantities of rice and beans were measured by the seok, roughly equivalent to about 180 liters by volume or up to 200 kilograms by weight. The imported shirting fabric was quantified in units of one thousand square yards, and cotton yarn in units of one thousand geun, a traditional unit of weight roughly equivalent to 600 grams. All units are on a logarithmic scale. Rice exports severely fluctuated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but steadily increas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export of rice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weather conditions of the rice crop. During bad harvests, the export of rice caused the price of rice to skyrocket. Joseon banned exports during these times. This means that while an export market for rice had emerged, the process of export commoditization was not a smooth one. Soybeans were a major export item during the port-opening years, and there were many years when soybean exports outpaced rice exports. However, in the colonial period, we can see that bean exports stagnated. Eventually, rice exports opened a wide lead over bean exports.



One particular kind of imported, machine-woven cotton fabric called shirting fabric, known in Joseon at the time as saenggeumgeon,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imports in the early days of the port-opening period. The shirting fabric was a popular imported cotton fabric at first, but its share of all imported fabrics declined as imports diversified.

Imports of shirting fabric and its coarser sheeting fabric continued to increase up to World War I, but then began to decline as large-scale textile mills opened in Korea. By the 1930s, local production was rapidly replacing imports. Imports of cotton yarn also grew rapidly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but stagnate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n plummeted beginning in the mid-1930s, as more spinning mills opened in Korea.

Figure 6-3 shows the evolution of relative prices and terms of trade. First, we compare the export price of Korean rice to that of Japanese rice, which was as low as 48 percent of Japanese rice in 1881. The gap with Japanese rice had narrowed to 69 percent by 1910.

Looking at the 1930s, we see that Japanese and Korean rice prices were virtually identical. Thi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Joseon benefited from increased rice exports relatively more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s up to the colonial period. It is believed that the promotion of rice monoculture contributed to this.

In the graph, we can see the ratio of the export price of Joseon rice per seek divided by the price per 100 square yards of imported shirting fabric. In 1881, the export price for one seek of Joseon rice was five yen, and the import price for 100 square yards of shirting fabric was 13 yen. Joseon could thus import 37 square yards of shirting fabric for every seek of rice it exported. By the 1900s, one seek of Joseon rice fetched 90 square yards of shirting fabric, and by the 1930s, one seek was worth 139 square yards of imported fabric.





This means that the relative price of cotton cloth had become cheaper compared to rice. Rice and shirting fabric are two individual items, but the terms of trade in Figure 6-3 extend to all exports and imports. The index has 1935 set as 1, so the figure goes from 0.47 in the 1870s to 0.99 in the 1900s. In other words, the data we have shows that both consumption and income levels increased in Joseon from the trade that followed the opening of its ports.

The effect of the inexpensive imported fabric on Joseon's traditional textiles industry was as great as the fabric was cheap. The conventional methods for producing cotton yarn were very inefficient and could not compete with imported cotton yarn produced by the mechanized spinning industry. Under such competitive pressures, weavers survived by using cheap imported cotton yarn and paying low wages.

The restructuring of the cotton weaving industry in East Asia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What happened in Japan and China also came to pass to some extent in Joseon. Figure 6-2 shows the trend in imports of cotton yarn, the raw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cotton textiles, and the rapid increase in imports of cotton yarn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shows that the conventional cotton textile industry was following the same path as its peers in Japan and China.

However, while imports of cotton yarn stagnate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mports of cotton cloth continued to grow. In 1908, Japan's cotton exports to Korea comprised 33 percent cotton yarn and 67 percent cotton fabric. The reverse was true of its cotton exports to China, of which 78 percent were exports of cotton yarn and 22 percent of cotton fabric. This shows that the traditional weaving sector in Joseon had a harder time adopting using imported cotton yarn than the weaving sectors in Japan and China.



In the end, conventional textiles only survived in the form of rural household cottage industries, and Joseon's cotton textile market came to be dominated by imported cotton products early on. However, in the colonial period, the introduction of large-scale cotton spinning machines by the Japanese eventually changed the nature of the domestic Joseon cotton fabric consumption market to one characterized by import substitution.

With that, let us wrap up this week's lecture. The opening of the ports not only exposed the Joseon economy to the world market, but also gave Koreans access to Western knowledge, technology, ideas, and institutions. The existing traditional order in East Asia, in which China was the center, contained could no longer stand up to the military and economic might of the West, or to its new ideas. This order collapsed.

Japan's rapid adoption of Western culture is symbolized by its victory over the Qing Dynasty in the Sino-Japanese War. The impact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limited to the opening of its market. The opening of Joseon sparked a transition into a new society, one with different production capacities, different lifestyles, and different ideas and institutions. Unfortunately, Joseon was unable to seize the power of these tidal changes, and enter modernity as an independent, modern nation, ultimately becoming a Japanese colony.

This has been the sixth lesson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This week, we have studied the opening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xt lecture will be on the topic of colon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6周

开港期：通过毕晓普游记的观察

6-1

毕晓普的《韩国和她的邻居们》

各位同学，大家好。 我是担任《韩国经济发展史》讲座的主讲金洛年。 很高兴通过这门讲座与大家见面。 这节课是我们的第八节课，以“开港期：通过毕晓普游记的观察”为主题。

从这节课开始，我们正式进入第二部分内容的学习。 在第二部分中，我们将按时期来考察韩国经济的展开过程，本节课将探讨第一个时期，开港期。

虽然第一部分可以使用20世纪以后已经完善的长期统计数据，但开港期除了贸易统计外，没有多少统计数据可依循。 这是因为近代的统计调查是从殖民地时期以后才开始的。 因此，关于开港期，我想使用毕晓普到访韩国，辗转全国各地，留下了仔细的观察记录的游记这一资料，来掌握19世纪末当时的实际情况。

因为这本记录，如后叙一般，具有充分的史料价值。 利用这本记录和贸易统计，我们来思考一下这个时期贸易的实际情况，以及它对当时经济带来的影响。

伊莎贝拉·伯德·毕晓普在英国出生，是一名有许多畅销作品的作家，也是皇家地理学会的第一位女性会员地理学家。 这张照片就是毕晓普。 毕晓普一直坚持寻访世界各地，亲临现场做研究。 毕晓普第一次到访韩国已是63岁高龄，但多次与高宗和闵妃会面，不仅是外交官或传教士，而且到访朝鲜各地，对当地接触到的朝鲜人民生活，留下了生动的观察记录。 这是1897年在英国出版的 *Korea and Her Neighbors*，韩语版本就是《韩国和她的邻居们》。 下面来引用一下“作者序言”的第一段。 毕晓普给英语地区的读者们简略传达了对朝鲜的看法。





“1894年冬天到1897年春天，我去韩国实地考察了四次。 韩国旅行是我研究蒙古人的国家、地理及其民族特性的学术计划的一部分。 初次到访韩国时，韩国给我留下的印象，是我目前为止旅行过的国家中最无趣的一个。 但是在甲午中日战争期间，随着认识到韩国的政治动荡、急剧变化、以及韩国不知会如何的命运，我对这个国家产生了相当浓厚的兴趣。 并且，看到在西伯利亚的俄国政府下，韩国移民者们的现状，我认识到这个国家未来会有更大的可能性。 在韩国停留的人们无一例外都知道这个国家有着强烈的魅力，能够让人遗忘掉别扭的初印象。”

不难想象，当时外国人针对朝鲜写研究书绝非易事。 最重要的是因为缺乏可依据、可信的资料。 毕晓普对此这样提及。“最初的目标是准确地研究和传播韩国。 我敢说为了达成这个目标，我已经尽自己的所能。 我几乎采访了所有这个时期在韩国待过的欧洲人。”

也就是说，毕晓普不仅亲自观察了当地朝鲜人的生活，还想广泛吸纳已经来过朝鲜的传教士或外交官的经历和知识。 而且不限于单纯的观察，还有很多描述是不通过缜密的探究来进行充分的理解就写不出来的。 举个例子，结婚或葬礼，巫俗信仰或鬼神相关的叙述就是如此。

对此，毕晓普表示：“这本书的几个主题中都有详细的世事描述，这是我想要把将要消失的习俗、祭祀及仪式记录在纸上保留下来的思考结果。” 虽然这些叙述现在几乎都消失了，但对当时朝鲜人们婚丧的各种流程赋予了某些意义，让大家知道了鬼神迷信相关的思维方式。

而且，讲述日本人杀害闵妃的乙未事变时，做了身临其境般的详细描述，这些记录来源于毕晓普在日本广岛开庭的乙未事变的法庭上，亲自观摩的审讯和判决。

这本游记除了毕晓普直接观察到的，也反映了当时欧洲人对朝鲜和朝鲜人有怎样的认识，打探了当地人对朝鲜人的习俗和文化的想法后整理的内容也有所记载。 通过此描述，我认为毕晓普对当地的认知已逐渐加深。

我认为她的游记具有史料价值，是出于记录的现场性。 她在序言里这样说道。“由于韩国的海外通信网并不完善，我不能像在日本那样及时写信记下我旅行的经历。 作为代替，我选择详细地记录在本子上。 这个记录随着时间流逝，对韩国观察得越久，就逐渐加以修改。”



也就是说，当场记下了在当地观察到的东西，并根据这些来记叙游记。这比起过了一段时间之后靠记忆来记叙，能更为生动地展现当地的状况。

但我认为在游记中，观察者的观点很重要。如果是当时的当地人写游记的话，从现在的角度来看，看起来很特别的的东西对他们也习以为常，因此不会受到关注或者被记录下来。现如今韩国人的观点，和4~5代之前的祖先比起来，或许更接近毕晓普这样的外国人。

我想，生活在19世纪末的英国的毕晓普，已经历过工业社会，所以关于近代政治及社会体系的认知，包括国家和市民的关系在内，应该也和现在的韩国人差异不大。也就是说，在毕晓普和现在的韩国人看待社会的观点有着共通之处的意义上，这本游记的意义就像是可以通过毕晓普的眼睛来窥探125年前朝鲜的实际情况的时间胶囊一样。

只是因为毕晓普是英国人，所以在看待东方的角度上，可能会带有东方主义的色彩。也就是说，不管是文化还是价值，都认为东方相较于比西欧要更为低等。在游记中并不是没有有可以这样解释的叙述。但可以得知随着其对韩国的理解加深，这种偏见正转变为爱。毕晓普离开韩国后，写了如下感想。

她说：“在俄国和日本就韩国的命运彼此对立时，我离开了韩国，这非常遗憾。我一开始对韩国的厌恶感，现在已经变为可以称之为带有爱意的关心。无论是之前的哪次旅行，我都没法交到比在韩国更不舍得分开的、可爱亲切的朋友。”

另外，毕晓普比起俄国或中国，对日本态度更友好，这反映了当时国际政治上英国的外交立场。从日本后来的野心来看，可以说在结果上相当于为日本辩护。但这不能完全归咎于毕晓普的偏见。

毕晓普在最后一章写到，为了朝鲜更好的将来，有两点是必要的。一个是君主的权力要在宪法控制之下，另一个是为了朝鲜的改革，不可避免需要外部的援助。因为在朝鲜内部看不到推动改革的力量。



毕晓普预测，朝鲜需要外部援助最终只能依靠日本，她担忧地说道：“令人伤感的是，日本最终想把朝鲜作为被保护国的野心很明显”。我觉得毕晓普这种难以共存的预测，反映了即便当时朝鲜处境困难，国家的命运如风中残烛一般，内部也看不到具备改革力量的势力，可以请求帮助的邻国反而野心勃勃，这样进退两难的处境。





## 6-2 경제 및 사회 상황

毕晓普的游记中，不管是她接触的自然之美，遇见的景物还是对人们的详细描述都很多，但在这里，我们首先以其中展现当时的经济及社会情况的部分为中心，来简单地探讨一下。

首先来看一下是用什么交通工具到达旅行目的地的。 毕晓普从日本长崎坐船到了釜山。 从釜山到济物浦时坐船也用了3天，之后从元山再到釜山也是一样的。 这时的船运都是日本叫做日本邮船的海运公司运营的。

直到10年前，也就是1884年，从长崎经过釜山前往符拉迪沃斯托克的船五周发一次，经过釜山前往济物浦的船一个月发一次，据说现在每天都有大大小小的蒸汽船到达釜山。

照片是毕晓普拍的济物浦。 毕晓普在旅行时带着摄像机。 还有7.3kg的三脚摄像机和1.8kg的手持摄像机以及其配套用具。

毕晓普到达了济物浦，去首尔的时候就无法乘船了。 虽然讨论过济物浦和麻浦之间建立轮渡，但因有的地方水很浅，所以没法实现。 最初的铁路京仁线还没有开通。 英国总领事到了济物浦迎接，毕晓普坐着6名轿夫抬的轿子，花了7个小时到达了首尔。

总领事骑着轿夫牵的短腿马出行。 路上常有深坑，有时候也会为了躲避绕道而行。 之后 毕晓普逆汉江而上，去南汉江或北汉江周边的村庄实地考察，那时乘坐的是摆渡船。 下面引用一下毕晓普关于地方道路的说明。

“骑着马或者慢吞吞地走，不管哪种情况，一小时都不能达到4.8千米以上，这样的韩国道路还几乎没有名字。 几乎没有人工修缮的道路，因此在夏天是尘土飞扬的道路，在冬天是雪化了的泥泞道路，而且也不清扫或整修，道路表面凹凸不平，有很多突出的小石子。 大部分的情况下，道路的形成，是靠着马和人通行留下脚印，达到了一定程度就成了‘路’。 …许多小溪都没有桥，有也是原木上绑了树枝而已。 …甚至通向首尔的“6大路”桥梁状态也不稳定，马夫下马会先走三四步确认桥能否支撑重量再过去。 …根据我广泛的经历，交通不便无疑对韩国的发展是一个巨大的障碍。”





毕晓普第一次踏上韩国的土地就是在釜山开放港口的外国人侨居地。根据毕晓普的描述，引用一段文字。

“那是一个重要的领事馆、银行、许多日式商店和各种各样的英式或是日式住宅密密麻麻地布满了山坡与大海之间的美丽村庄。 那里有坚固的护墙和堤坝，用自治当局的费用建设了道路，具有排水设施和照明设施。 每一户分摊现金100分，用征收的资金来建设上水道。 人们现在希望干净的水有充足供给的话，频繁的流行性霍乱也结束。 特别显眼的是迅速填满城市上方的日军军人的墓地。”

“从哪方面来看釜山的居住地都是日本风。 除了5508名日本人口以外， 还有8千名日本渔民是流动人口。 日本总领事馆暂驻在有格调的欧式建筑里。 第一银行作为金融机构入驻，邮票电信业也由日本人负责。 日本人不仅维护了居住地的清洁，还引入了在韩国不为人知的产业。 就是要利用机器的脱粒，精米业（粮食加工业），捕鲸和渔民肥料制造业。”

对此， 朝鲜人居住的地方是釜山的旧街区，而外国人居住的是新街区，形成了鲜明的对比。根据毕晓普的描述说：“釜山旧街区的狭窄街道挤满了简陋的窝棚。 那些窝棚都是没有窗户的泥墙和稻草屋顶的深檐。 所有墙壁在离地上 60厘米的地方都有当烟囱用的黑烟洞。 窝棚外有一条不规则的沟渠，丢着固体和液体垃圾。 …沿着狭窄、多尘土的弯曲街道，商品都堆放在地上。 …讨价还价的声音很高，砍价浪费了很多时间，卖的时候往往还没有原先价格的1/10。”

外国人和朝鲜人居住地的对比在济物浦和元山的港口也没有什么不同。 再引用一些济物浦相关的描述。

“日本人的居住地占据了几乎所有去向首尔的大路，朝鲜人的村庄在这之外。 从英国教会所在的山坡爬上这个山坡，可以经过不干净的小路到达的每层岩石上，都满是朝鲜人的窑洞。”

“这个城市的6700名居民，更准确地说，是其中大约一半的男人总是在走动。 狭窄的路上，挤满了衣冠楚楚溜达着却表面上似乎无所事事的人。 这个地方除了有1美元到最多20美元存货商品的常设店铺，和釜山的旧街区没什么区别。 就算是小额交易也要费一个多小时进行讨价还价，可生意似乎也还能维持”下去。 在外国人居住地，朝鲜人主要做搬运工，用他们的木头背架搬运特别重的货物来维持生计。”



港口的外国人居留地形成是随着朝鲜开埠，同包括日本在内的外国签订的不平等条约为根据的，因此我想简略地补充说明一下相关条款。 首先，朝鲜政府1876年同日本签订的江华岛条约中，在釜山、之后增加了济物浦和元山开放港口， 在离码头的东西南北10里范围内，日本人能自由通行和通商，日本货币能流通，可以租借土地建造住房。

而且日本人犯了罪需要接受审判的话，可以根据日本的法律接受审判。 这叫做领事裁判权，是认可朝鲜内的治外法权。 在许多方面上朝鲜的主权都受到制约，可以说是不平等条约。

如前面所看到的那样，港口的外国人居留地以绝大多数的日本人为中心建立了地方政府，形成了像小型日本一样的社会，也是因为这样的情况。 毕晓普访问是在开埠后不到20年的时候，外国人居留地和旧有的朝鲜社会间的对比鲜明。

1882年朝鲜和清政府签订的朝清商民水陆贸易章程是更严重的不平等条约。 1882年壬午军乱使闵氏政权陷入倒台危机，闵妃向清政府请求了派兵，靠清军的帮助才夺回了政权。 这是在清政府影响力的扩大之下签订的条约，其中明确规定朝鲜是清政府的“属国”。

清政府的治外法权比江华岛条约还要进一步强化，允许清朝商人除了开放港口，也可以在杨花津和首尔通商。 因此，清朝商人在通商上占据了有利地位，同先前进入的日本商人的竞争加剧。

该条约随着清政府在甲午战争中战败而废除。 这之外同美国、英国、德国也签订了通商条约，之前达成的不平等条约内容大都被延续下来。

再回过头来看毕晓普的游记。 来看一下毕晓普在首尔照的几张照片。 照片3是南大门的照片。 可以看到旁边的草房子民居。 照片4是首尔的光化门一代。 照片的中间是光化门，左边是景福宫。 可以看到这一代都是瓦房。

对此，照片5是首尔的南部街道，路的两侧排列着草房和瓦房，路上有人们来来往往。 照片6是首尔的杂货店，卖的物品看起来很不起眼。



在旅行时遇到的一个问题是支付路费使用的货币。 因为虽然在开放港口或首尔，可以兑换日元或美元，但进内陆的话就不行。 在首尔滞留了50天的毕晓普，乘坐摆渡船开始了逆汉江而上的旅程。

在南汉江和北汉江周边考察了一个多月之后，放弃摆渡船，走陆路，经过金刚山前往元山。 引用一下毕晓普关于货币的说明。

“金钱方面的困难使所有前往内陆地方的游客困扰，因此我制定了令人相当忧虑的计划。 日本的日元及其零钱只能在首尔和开放港口流通，内陆哪里都没有银行或换钱商人因此只流通现金。 当时韩国的货币价值在名义上一美元兑3200分。 这些硬币在一根草绳上串几百个，无论是数钱、运输还是付钱都很麻烦。 为了运输100日元的现金，需要六个人或者一匹短腿马。 不过10英镑而已...”

这里所谓的现金其实是说叶钱，如果是现在的话，可以想一下必须把几百万韩元的旅行经费全都用10韩元的硬币捆起来背着去支付的情况。

照片7是毕晓普一行去旅行。 可以看到短腿马骑着人或者载着行李。 照片8是毕晓普一行逆汉江而上时乘坐的摆渡船。 乘坐这艘摆渡船时不能带着短腿马，叶钱铺在地板上运输。

有一种制度，当时的外国旅客们携带着通过他们的领事从外交部寄往地方官府一种叫单子的信件，把这个给地方官府看的话，就可以在饮食和交通或金钱方面得到许多便利。

但是和首尔不同，地方官府为外国人提供便利的收付款不能从中央政府收回的情况很多，因此地方官府对此并不满意。 毕晓普不能利用这样的制度，最终把旅途中要使用的叶钱铺在摆渡船底上运输。

旅途中绕过南汉江到达丹阳时，换的叶钱也都用光了。 虽然想把带的银币换成叶钱，但是谁也不信任银的价值，没法兑换，就这样浪费了一天，为了换钱不得不再回到首尔。 万幸，在堤川附近的马桥市场可以拿70个银币换6千两铜钱。 动用了6名壮丁把铜钱搬到船上，船底又能被重新填满了。





但根据时期和地域情况也不同。甲午战争爆发后，毕晓普离开了朝鲜，考察了中国各地之后，经过日本，1895年冬天再次到访朝鲜。这时，在考察包括平壤在内的朝鲜西北部地方的过程中，对于货币提出了以下看法。

“在日本的影响下，用银制作的日元慢慢地渗透了韩国经济体系。因此，即便连新铸造的韩国硬币的样本都没见过，没有像上次的旅行那样必须带着一担钱到处走，或者找不回日元而处境困难这样的不便，使用在所有旅馆里都通用的大日元银币就可以了。”

随着甲午战争以后日本的政治影响力扩大，日元在朝鲜内的流通也得到了扩大。毕晓普在文中多处提到，朝鲜的商业交易规模很小，商业还不发达。首先来看一下关于首尔商店的描写。

“商店在让人留下首尔很寒酸的印象上占优。大概在首尔的商店里，拿出来卖的东西全加起来也不过6美元左右。…我去过一次钟阁旁边首尔最大的商店。首尔的3大大路中，有一条走着走着，就可以看到大路上有两排用车做的可移动式简易商店。…如下，列举出了22种在这种地方或其他商店交易的韩国重要商品。棉制布料、草鞋、斗笠、陶瓷器、烛台、梳子、玻璃珠子、烟斗、烟袋、痰盂、塑框眼镜、韩纸、木枕、方枕、扇子、墨水瓶、马鞍、捣衣锤、柿饼、糖块、海带、蘑菇等等。此外，还有外国制造的进口劣质藏品，照搬了欧洲人低级取向，但只有表面有模有样。像是6便士的灯油、小镜子、闪闪发光的碗等等。…生产普通的黄铜餐具和其他黄铜制品，粘着用贝壳做的传统图案的黑漆木工制品往往也会被贩卖。而且虽然有的产品在丝绸上用金线刺绣，但其实大多粗制滥造且颜色劣质。…而且外国人称有英国公使馆的街道为“衣柜的街道”。这些衣柜虽然不大但是很漂亮。这些产品虽然完全是韩国风格，但极其华丽。”

首尔虽然有常设商店，但如果去地方，除了每5天开一次的集市，没有办法进行交易。例如，关于黄海道凤山的市场，毕晓普把交易的商品几乎囊括一般地罗列了出来。来听一下她的描述。





“在村庄里没有店铺，就算有也很少。因为谁也不储存商品，所以除了赶集日，想买点什么是几乎不可能的。平时安静沉闷的村庄在赶集日就完全变了个模样。热闹非凡，五彩缤纷，人潮涌动。从一大清早开始，去往官方指定的市场的路上也满是农民们卖的或是物物交换的物品。…旁边的大路上，货郎们背着沉重的包袱，或者装到搬运工或者黄牛身上。……有些人摆摊卖绸缎、苧麻布、南瓜、腰带、纽扣、小镜子、烟袋、色镜等。但是，大量的必需品和奢侈品大部分都展示在低矮的桌子或地上的席子上，商人在摆之前要向户主支付一些钱。”

毕晓普就像是要把市场出现的所有物品，一个不落地都记录下来。虽然毕晓普也对各商品附上了说明，但我在这里将只会罗列商品。就是，满满芝麻的麦芽糖、糖果饼干、日本和英国产的衬衫料子、麻布衣服、土耳其产的红色布衣服、薄绸、苯胺和藏红花还有靛蓝等染料、火柴、木梳、金属发夹、钱包、全罗道来的纸、稻草做的凉席、打火石、亚麻布或稻草或芦苇做的帽子、韩国出产的粗糙且窄小的棉衣、马嚼子、木屐、铁制品有铁锅、铁锹、门把手、钉子、以及多用途的酱缸、这之外还有雨衣、油纸、帽罩、辣椒粉、大米、豌豆、豆腐等等。

这些展示了农民们在集市能买到什么种类的商品。这些里面也有农民拿出来卖的东西，但大部分是货商供给的。集市上有相当多的商品，其中包括日本或英国的棉制品或杂货，可以得知进口商品也通过农村集市被消费。只是集市的交易量没那么多。

罗列了交易商品之后，接着毕晓普描述说，“交易进行的十分缓慢，聚集起来的人们也像他们中间站了几个小时的温顺黄牛一样，大部分很安静。下午晚些时候流动商贩收拾好东西，出发去参加下一个集市。”但是也有部分人推断，根据地区不同，可能毕晓普观察不到有些能赚大钱的商业交易。

她说道：“我暂住的房子有很多商人是户主中介业务的对象，多次进进出出，都成了日常。官员出身的李氏作为毕晓普的同行人员担任过翻译，每天晚上都被邀请吃饭，最后一天晚上招待他的所有人都在一起欢聚。那顿饭的人均饭费相当于圣餐厅的晚餐费！噪音是他们聚会的必备要素。男人们用最大的声音吆喝。”，这段内容是毕晓普访问平壤时亲身经历的事情，商人们的花销也让她为之震惊。因为她认为，如果要负担这个水平的消费支出，用在前述的首尔商店和农村集市中挣的钱是不可能的。



多处都有提到朝鲜农业或农民。首先引用一下对汉江流域居民的提及和其他地区农业相关的描述部分。

“居民们都是农民，大部分人从两班那里借了土地来用，土地所有人在结束秋收后也有赶走他们的权利，但似乎没有强制行使这种权利。地主提供种子，农民向地主支付一半产出。有些人买了地，获得了权利证书。在1894年，他们支付了以一天可以耕种的土地面积为基准制定的税金，为大麦、大豆、大米、棉花也支付了税金，其总和有浮动。…钱几乎不流通，盛行通过物物交换来做交易，或者农民也用自己的劳动来支付贷款。农民们最重要的支出是为了穿好衣服而购买外国出产的棉制品。在内陆水路的终点站宁越，这个价格比首尔更贵，每50厘米卖30钱。

“在从长安寺到元山的陆地旅行期间，我得到了比起在汉江流域可以更好的观察韩国农业的机会。与日本的整洁轻便、中国的勤劳节俭相比，韩国农业多少给人一种散漫和没有好好收拾的感觉。留着夏天要锄的杂草，石子就那么扔在田里。田野周围和田埂坑坑洼洼，不怎么好看的农家石墙损坏严重。分野的小路上杂草丛生，垄沟也不平整。但是大体上植物的发育状态良好，大部分作物比想象的要干净。值得注意的是家畜是几乎没有的，除了首尔周边或近郊地区几乎都不使用肥料，土地也足够肥沃。”

毕晓普把同一时期的日本和中国都考察过了，因此将韩国农业的特征与他们比较之后进行评价。毕晓普在朝鲜考察过的地区，有南汉江和北汉江周边地区，以及从那里到元山的地区，还有黄海道和平安道的西北地方，有些遗憾的是没有去全罗道和庆尚道的农村。

有很多在那里生活的农民、两班或是官员相关的描述。其中对于两班官员进行了严厉批判，称他们为“韩国社会的寄生虫”。介绍一下访问骊州时相关的描述：“在衙门里，榨取韩国生命力的寄生虫们挤成一团。在那里，戴着蒂罗尔帽子，穿着主色为蓝的粗糙棉制品的军人和捕快，作家，腐败的官员，总是假装手上有工作的传令，在许多小屋子里，有更多的人聚坐在地板上，用长烟袋抽着烟。”



“听说骊州有很多‘高位两班’，不知是不是这个原因，只有700户人家的村庄的地方官员地位自然不是那么高。地方官员上任时，他们用着下待的语气，就像对待他们下人一般下令。地方官员主要住在首尔，偶尔会到宽敞且精心装饰的衙门废墟般的岗位工作，分享掠夺的物品。最终两班不管他们设什么计谋都能做到。这种事情不止局限在这。几乎所有河边的地方官员都不在，大部分时间都在首都压榨租税。我与三位其他地方官员做了类似的面谈。我只请求了把3日元换成现金。而且每当这时都会听到说金库正空着。”

这种对两班官员的负面描写，可能是因为他们对毕晓普不友好的态度，所以有所夸张。而且这里描述的事情全都不是毕晓普亲自观察的，反映的是她遇见的曾在朝鲜生活过的传教士或外交官的认知。

接下来的描述很好地体现了毕晓普对农民的认知。

“如果说把贫穷定义为生存必需品的不足，那么生活在汉江流域溪谷的居民们绝不贫穷。不管是为了他们自己，还是为了按照韩国的习俗可以得到他们盛情款待的过路旅客，都有足够的生活必需品。大概他们都背着债务，没有被这些债务缠上的韩国人少之又少。要说的话，他们缺少的不是生活绝对需要的物品，而是金钱和财富。他们看起来很懒惰。我真的是这么想的。但这是因为韩国人活在自己通过劳动获得的财产完全得不到保护的体制下。可以说，如果某人被传言说他“赚了钱”，或者甚至只是被传买了奢侈品黄铜餐具，也会引起附近贪婪的官员或他的狗腿子注意，或者遭到附近两班还贷款的催促。即便如此，汉江流域的自耕农们实际上安乐自得。”

除了经济，毕晓普对朝鲜人的习俗和意识也十分关注。韩国的巫俗信仰，以及鬼神或迷信相关的叙述具有代表性。例如，详细调查并整理了当时朝鲜人崇拜的鬼神族谱（神谱）或序列、巫婆或风水先生、巫婆驱赶恶鬼的驱鬼法等。引用一下相关内容。

“韩国人相信在天、地、空气、山、川、海都满是鬼。甚至鬼会经常去树荫、溪谷、很多泉边以及山脊。相信绿色的山坡上，种着庄稼的平和溪谷中，草木茂盛的山谷里，多树的高地上，道路与河川旁，甚至东南西北到处都有鬼，对于人的命运，通过极其隐蔽的恶作剧来得到安慰。而且在屋顶，天花板，灶孔，矿和石材这些地方，鬼神无处不在。他们也遍布在烟囱、库房、地板和厨房。…这种多神观可能是由于自然环境相对不太残酷，在情绪和感情上同化的倾向较强，而不是与自然界做交易将其对象化。”





"韩国人的这种信仰使他们永远无法从小心谨慎的不安中摆脱出来。…鬼的存在在每个方面都影响着韩国人，所以使他们为了维持富贵，不断地去驱鬼。”而且，鬼在他们疏忽了崇拜时，会毫不留情地以灾难进行报复，因此最终韩国人只能一辈子奴隶般地服从鬼。”

而且这不仅仅是意识层面的问题。她说道：“请巫婆的费用很贵。据悉，巫俗事业每年需要2亿20万美元！人们相信当想要得到鬼的恩惠或避免不幸时，就需要雇用巫师作为中介人。压迫民众的不是仪式上的祭品或巫师在现实世界中的权力，而是雇佣巫师的费用。”

这种巫俗信仰，除了一部分重视祖先崇拜的知识阶层，统治了从王族到住在贫穷草房的下层居民，所有妇女和大多数男性的精神世界。

毕晓普对朝鲜人的认识随着她访问朝鲜人在西伯利亚的移民村，发生了很大的变化。她去满洲是为了调查将近2万名朝鲜人处于怎样的环境。这是一个可以观察到朝鲜人在其他政府而不是自己的政府之下时，生活状况会发生怎样变化的好机会。就像进行了在第一周的课程中提到的制度实验一样。

从19世纪60年代，饥饿的朝鲜人从咸镜道越过国界开始了移民，几乎都是以荒芜之地或什么都没有的普里莫斯克为中心，定居人数从16000人到18000人不等。1884年之前移民的朝鲜人可以作为俄国国民主张权利，自治之后，从韩国人中选出这个地区的官员。来介绍一下毕晓普关于这些的描写。

“对于这个地方的韩国男人，故国男人特有的蔫样子全都消失了。土著韩国人的特征——疑心和懒惰的自负心，对比自己强大的人的奴性变为了自主意识和独立意识，而且变得有与其说是亚洲人的，不如说是英国人的硬汉气质。热闹的活动使傲慢的两班不再趾高气扬，气馁的农民不再游手好闲。有很多赚钱的机会，没有中国官员或两班的剥削。安乐与某种形态的财富也再也不会成为官员们掠夺的对象。”





“在韩国的时候，我怀疑过韩国人是不是世界上最低等的民族，认为他们的情况是没有指望的。但在普里莫斯克这个地方，我发现了足以改变正我观点的理由。这里的韩国人成了兴旺的富农，变成勤勉出色、具有优秀品性的人。要记住一点，他们如果在韩国的话，不会同样勤俭节约的。他们大部分不过是从饥荒中掏出来的难民而已。他们的繁荣和普遍行为让我相信，只要留在韩国的民众在正直的政府下，他们的生计可以得到保护，就会渐渐发展为真正意义上的‘市民’”。

保护个人的财产权，对个人努力给予奖励的制度可以带来经济增长，这也就是在第一周的课程中探讨的现代的制度，经济学的核心，而19世纪末的毕晓普正确理解了这一点。这也不仅仅是单纯的理论推测，而是比较了两个在不同制度下生活的朝鲜人团体的经济成果后根据其“实验”结果做出的结论。

还要再加上一点，完全感觉不到毕晓普担心在朝鲜旅行时会遭遇强盗抢劫。下面的引用提到了她在首尔及其周边逛的感想。她说：“我想要再多说一句，欧洲没有首尔这样的城市，维持良好的治安，女性没有男性护送也可以自由走动。这正是我自己走在城墙外的每个地方都没经历一点点意外，亲身所体会到的。”

虽然在地方转悠的时候也因为对外国人的过度好奇，感到对自己无礼地纠缠或造成了不便表示了不满，但没有对治安的担忧。这与毕晓普在满洲遇到马贼被抢劫贵重品的经历形成了对比。就算是现在，首尔也是世界上治安最好的城市。我认为延续了100多年的朝鲜社会其特性值得我们关注。



### 6-3 动荡的国际经济和改革的挫折

毕晓普访问的1894年2月到1897年1月期间，是围绕朝鲜的国际局势剧变，国内政治动荡的时期。关于这个时期，已经通过历史研究和教育普及，因此我认为没必要在这里详细讲游记的相关内容。但是，概括了这个时期主要事件的大进程之后，会简单介绍一下毕晓普留下的“寄给韩国的最后一句话”。

毕晓普第一次到韩国的时候，正值东学农民起义爆发，农民军攻陷晋州城，朝廷感受到危机，再次请求清军派兵，这成了一个祸根，日本也派遣军队，这一年6月在朝鲜爆发了甲午战争。这时，日本军占领了首尔，在其影响下革新派政府上台，在之后的19个月推进了第1~3次甲午改革。

提一下其中几点，中央改组，并且将议政府作为中央统治的骨干机关，在其下设8个衙门。分离了宫内府，让议政府无法干预工作。除此以外，还废除科举制并且实行新的人才选拔制度，纳税款化，实行银本位货币制度，统一度量衡，设立警务厅并且废除现存军制，废除门阀并且取消身份制，禁止早婚并且允许寡妇再嫁等等，范围很广。

其内容涉及政治经济社会的各个领域，具有近代的制度改革性质。这反映了1884年通过甲申政变或东学农民起义显现的朝鲜内部改革要求。另一方面，由于日本的介入而推进，所以具有他律性质，包括王室在内的既得利益阶层对此表示强烈反对。

随着日本在甲午战争中的胜利，清政府对朝鲜的影响被消除了。但是由于战后日本同清政府签订的马关条约，割让了辽东半岛，爆发了以俄国为首，包括德法在内的三国对日本施加压力，要求日本把辽东半岛归还清政府的事件。这叫做三国干涉还辽，以此为契机，形成了日本和俄国对立的局面，高宗和闵妃想要接近俄国，来牵制日本。

因为日本当时与俄国对战还为时尚早，所以想要阻止朝鲜接近俄国。为此掀起了杀害闵妃的乙未事变，这让朝鲜内部对日本的反抗到达了高潮。此外，作为甲午改革的一部分，1895年底实行了断发令强制剪掉发髻，遭到了强烈反对，不只是日本，还引发了反对他们支援下推进的甲午改革的抗议。



在这种情况下，1896年2月发生了俄馆播迁，高宗躲到了俄国公使馆。与此同时，高宗宣布不同意断发令，把牵涉到乙未事变的人和主谋甲午改革的人定罪为叛徒。

因此，已有的内阁倒台，包括金弘集在内，主导了甲午改革的人都被愤怒的民众杀害了。这之后，在甲午改革中推进的改革措施相当一部分都失效了。最具代表性的就是试图限制王权的中央官制也倒退回去了。毕晓普在游记中涉及的时期到此为止。

如果再延长说这之后的发展，就是大家知道的那样，高宗1年后从俄国公使馆出来，1897年成立了大韩帝国。如果看相当于其宪法的大韩国国制，阐明了是自主独立的帝国，皇帝具有无限军权，是一个集中立法、行政、军队统率权、外交等权力的专制君主国。在此之前，独立协会于1898年召开了万民共同会，反对依赖俄国的政府和俄国的权利掠夺，要求成立议会。

大韩国国制是在这种要求越来越强烈后，解散了独立协会，禁止集会后发布的。其中缺少关于国民基本权利的规定，与近代宪法相去甚远。王权的强化在财政方面，政府财政萎缩，而相反以宫内府的内藏院为中心的皇室财产急剧膨胀。

大韩帝国从甲午改革曾追求的目标开始大幅后退。之后就韩国的统治权，日本与俄国的对立达到高潮，随着1904年~1905年俄日战争中日本胜利，韩国沦为了其殖民地。

我认为关于韩国通过自主改革建立近代国家为什么会失败，需要深刻的反省。首先，我认为不了解世界局势只专注于权力斗争的执政者们难辞其咎。

他们的权力斗争可以追溯到更早的时候。毕晓普多次会见王妃和高宗，对他们怀有深深的怜悯之情，但是对当时政治史的描述如下。可以概括为“从大院君摄政结束到王妃被杀害，韩国政治史一贯是王妃与其一族，以及大院君之间的腥风血雨的反目。”

1864年~1873年大院君摄政结束，闵妃与其一族得势，1882年因壬午军乱大院君卷土重来，处于危机中的闵妃召来了清军，幽禁了大院君。这时派到首尔的清军成了尝试近代改革的甲申政变失败的重要原因。因为东学农民起义导致的政权危机，再次召来了清军，如前面讲的那样，这成了甲午战争的导火索。日本企图利用大院君与闵妃的深仇宿怨。





甲午战争爆发之前，在1894年6月，日军占领了景福宫时，为了牵制闵妃让大院君出面，在乙未事变时日本也让大院君再次入宫，使他成为主导闵妃废位一样的存在。这之后，高宗以及遇害前的闵妃想要拉拢俄国，之后就爆发了俄日战争。拉拢了外国势力的权力斗争，最终导致了主权的丧失。

我认为更根本的是，应该问为什么朝鲜向近代社会的发展被推迟，又因此在修的文化产物和思想涌来时无法及时应对。关于这个，在游记的最后一章中，毕晓普提到的可以说是针对朝鲜社会问题的诊断和处方，虽然有些长，但还是引用一下。

“韩国不是贫穷的国家。资源没有枯竭，都没有被开发。推动农业发展成功的能力里也几乎没有被用到。…很不幸，韩国国民的潜力没有被充分利用。没有打开中产阶级可以进入的道路。没有他们中产阶级能投入精力的熟练工作。…韩国特权阶级的剥削，官公署残酷的税赋，总体正义缺席，全部收入的不稳定，大部分东方政府立足于的最坏传统——不推行改革性的政策，公职人员另有所图的掠夺行为，衰弱的君主闲居在不怎么样的后宫和宫殿，最腐败的帝国联盟，以及广泛传播并使民众陷入恐怖之中的迷信，这些使韩国国力变弱，变成了寒酸和不起眼的样子。在这一背景下，我留下了对韩国的第一印象。尽管如此，我还是在韩国的大海、土地、饱受苦难的国民之中看到了希望。

在韩国，非常严重、普遍令人厌恶的习俗，就是身体健全的人依赖比自己富裕的亲戚或朋友，这一种在成千上万人中存在的恶习。他们对此毫不惭愧，也没有舆论指责这种行为。…对于被一群门客围着的人来说，有一条出路就是当官。无论地位高低，官职都用国库给他供养白吃白喝的人开辟了道路。…政府雇佣和给这个垃圾阶级做慈善事业几乎没区别。长期以来，令韩国不光彩的就是卖官卖职。…如果他们被任命了官职，除了浪费国家的工资和收受贿赂之外，几乎没有什么能做的。实际在土地上劳动的耕者是所有这些寄生虫的赡养者，这件事让我反复地感到厌恶。在韩国，农民是工作最努力的阶级，虽然他们的工作内容很原始，但如果可以很好地适应土地和气候，就很容易能让自己的劳动产量加倍。但他们因利益无法得到保障，所以只要能养活自己的家人并穿得上衣服就满足了，并没有想法要建更好的房子或穿更有品位的衣服。…因显而易见的绝望而饱受苦难的阶级，陷入了漠不关心、惰性、冷淡和麻木的状态中，这并不令人感到震惊。”





而且,对此作为一种处方,毕肖普说了下面这些话。 她提出:“韩国在这种没有希望的情况下,通过教育,保护生产阶级,处罚不法的官员, 以及对所有官职进行务实性测试,也就是要通过只为实际的工作量付钱,建设新的国家。”

毕晓普的这种见解,是带着与现在共有的近代视角走遍了当时朝鲜的各个角落,在当地亲眼看到并深思熟虑后得出的结果,因此我认为是值得倾听的。



## 6-4 开港期贸易

朝鲜通过开港进入了自由贸易的时代。虽然对进口商品征收5%的协定关税，但并没有对贸易进行限制。在这里，我们将思考开港期贸易的实际情况及其对产业结构产生的影响。

虽然说贸易统计几乎是反映这一时期全国实际情况的唯一统计，但统计机构并没有以一贯的方式进行统计。

从1876年开始开放港口贸易，但直到1884年设立海关征收关税，朝鲜没有贸易统计机构。这一时期开放港口的贸易几乎被日本垄断，因此可以从日方的贸易统计中逆向掌握相关数据。

海关设立以后，朝鲜的贸易统计收录在了清政府的海关统计书的附录。当时，清政府以向朝鲜提供贷款为代价，掌握了海关的运营权，而清政府和朝鲜海关的税务负责人都是西方人，因此该资料是用英文发行的。

1894年甲午战争以后，该资料中不再记载朝鲜贸易统计，但朝鲜海关似乎一直在继续进行统计。例如，俄国大藏省发刊的《韩国志》中，记载了1883年~1907年的贸易统计，这是和海关统计相继的资料。

除此之外，虽然在19世纪末有英国领事馆制定的年度报告书，但是商品品种少，缺少数量统计，在使用上存在局限。朝鲜总督府从1908年到1941年每年发行叫做《朝鲜贸易年表》的详细统计书，在此之前的1901年~1907年收集了朝鲜海关的统计，以《朝鲜进出口品7年对照表》发行。

这个时期的贸易统计是收集了分散在各地的资料后衔接起来的。各个资料中标示贸易额的货币单位也各不相同。清政府的海关统计书和俄罗斯的《韩国志》上记载的统计是用墨西哥元标示的，这不仅是在朝鲜的开放港口，包括中国在内，在东南亚各地也流通过。

英国领事馆资料的金额统计为英镑，朝鲜总督府制定的资料中用日本银币标示。作为参考，日本银币与墨西哥银币几乎平等地流通，随着伪造的墨西哥银币增多，日本银币逐渐成为主要的结算和会计方式。我认为，这种贸易统计状况象征性地体现了当时朝鲜政府多么不作为。



这些贸易统计按商品品类展示了数量和金额。将各品类的出口额或进口额除以各自的数量，就可以获得各品类出口或进口的单价。如果将各商品在贸易额中所占的比重作为加权值来看，可以利用各商品的单价得出出口或进口单价指数。另外，出口额或进口额分别除以出口或进口单价指数，就是出口或进口量指数。它除去了价格的变化后，显示了贸易的增长有多快。

图6-1是将这样求得的朝鲜出口与日本及世界平均趋势进行比较。以1913年为100的指数基准，作为对数坐标。Y轴的刻度高一格，就说明出口规模会增加10倍，图表的倾斜度越高，说明增长率越高。从1870年以后到第一次世界大战前的1913年，世界贸易持续增长，根据Maddison的数据显示，出口年均增长率为3.3%。

这个时期日本的出口比世界平均速度快很多，朝鲜的出口虽然在不同时期出现起伏，但增长率与日本没有什么不同。第一次世界大战之后，世界贸易发展出现停滞甚至下降，但与此不同的是朝鲜的出口增长趋势仍在持续，特别是在第一次世界大战期间，日本的出口增长率也大幅领先。

可以用GDP对比来衡量贸易规模。GDP的估算始于1911年，这一年出口和进口的GDP之比，即出口和进口的依赖度分别为7%和13%。两者加起来的贸易依赖度是20%。1935年殖民地时期达到峰值，对出口和进口的依赖度分别为33%和32%，略低于1/3。但可以把开港时的贸易看作是0，这就意味着开港后35年间贸易依赖度增加了20个百分点。可以说在这个时期贸易正式开始对朝鲜人的生活产生影响。

我们将从这一时期贸易的代表性商品中，选择在出口上比重最高的大米和大豆，在进口上比重最高的棉织品——生金巾和棉纱，来更具体地看一下它们的变化趋势。图6-2显示了这些商品的贸易量趋势。这里大米和大豆的数量是石，生金条是千平方码，棉纱是千斤，用对数坐标表示。大米出口在开港时期的增减起伏很大，进入殖民地后稳定增长。

开港时期的大米出口受到稻子丰歉的影响很大，特别是歉收时因大米出口导致大米价格暴涨，因此朝鲜地方官员为了阻止大米出口下了防谷令。虽然出现了大米的出口市场，但其出口商品化的过程并不顺利。大豆是开港时期的代表性出口商品，而且很多时候出口量比大米还多。只是进入殖民地时期，大豆的出口量停滞，渐渐拉大了和大米的差距。





另一方面，生金巾是机制棉织品，在开港初期作为单一商品占进口额的过半数。虽然进口织物的种类逐渐多样化，其比重有所下降，但仍可以看作是进口棉织品的代表商品。

虽然生金干和比这更粗糙的棉被单布在第一次世界大战期间的进口量有所增加，但后来随着大规模纺织工厂进入朝鲜开始减少，在20世纪30年代，朝鲜国内的产品迅速取代了进口产品。棉纱的进口也在开港期迅速增加，但在日俄战争以后一直停滞不前，随着朝鲜纺织工厂的增加在20世纪30年代中期以后急剧下降。

图6-3显示了相对价格和贸易条件的趋势。首先，朝鲜米的出口价格和日本米的价格相比较，1881年日本米的出口价格为较低的48%，但此后差距逐渐缩小，于1910年达到了69%。到了20世纪30年代，两个地区的米价已经非常接近。这意味着开港以后随着进入殖民地时期，大米的出口对朝鲜来说相对有利，我认为这是推动农业作物结构中集中于大米的粮食单一化的一个重要因素。

图表中显示了每石朝鲜米的出口价格除以每100平方码进口生金巾的比率。1881年，每石朝鲜米的出口价格是5日元，每100平方码进口生金巾的价格是13日元，所以出口一石朝鲜米可以进口37平方码生金巾。这个比例在20世纪00年代提高到90平方码，到了30年代则可以进口139平方码。

也就是说比起大米，棉织品的相对价格变得相当便宜。大米和生金巾只是个别商品，将此扩大到全体出口及进口商品后来看图6-3的贸易条件。这是将1935年看作1的指数，从19世纪70年代的0.47上升到1900年代的0.99。也就是说，以上意味着在开港期通过贸易，朝鲜的消费、进而收入水平也进一步提高。

但是，进口棉制品的价格相对低廉，这意味着对朝鲜传统纺织业造成了相当大的冲击。因为传统棉纱生产率很低，同机械纺纱业生产的进口棉纱没有竞争力。在这种情况下，纺织的织布部门其生存之路是利用低廉的进口棉纱来减少原料费和低工资。





这种棉纺业的调整方向，正如现有研究已经阐明的那样，也出现在了日本和中国，并且在朝鲜也有出现。在图6-2中可以看到作为棉制品原料的棉纱进口量趋势，开港期棉纱进口的急速增加表明在朝鲜传统棉纺业也在向这样的方向进行调整。

但是，虽然棉纱进口在俄日战争以后停滞不前，而棉布进口量却一直增加。在1908年，虽然在日本对朝鲜的棉制品出口中，棉纱为33%，棉织品为67%，是以棉织品为中心，而对中国的棉制品出口中，棉纱为78%，棉织品为22%，相反出现了以棉纱为中心的对比。这表明，朝鲜利用进口棉纱调整和发展传统纺织业并不比日本和中国容易。

最终传统纺织业以农村家庭手工业的形态残存下来，而朝鲜的棉织品市场早就被进口棉制品霸占了。但是朝鲜内部棉织品消费市场这种依赖进口商品的扩大，随着进入殖民地时期日本大规模的纺纱资本进入，会经历代替进口的过程。

现在我们这节课也步入了尾声。开放港口不仅让朝鲜经济暴露在世界市场中，也让朝鲜人得以接触到西欧的知识和技术，以及思想和制度。现有的以中国为中心的，西欧的文化产物带着新的近代价值，强大的军事力量和经济力量，

快速接受了西方文化产物的日本在甲午战争中完胜清政府，象征性地证明了这一点。在朝鲜，开放港口的巨大冲击不仅仅开放了市场，接触到了与现有文明不同的生产力、生活方式或是新的思想和制度，也就是名为近代的新型社会，处在走向这个社会的过渡期。朝鲜很不幸，在这样的时代潮流中，最终也没能发展成为自主的近代国家，而是沦为了日本的殖民地。

这节课是我们《韩国经济发展史》的第六节课，学习了开港期的相关内容。第七节课我们将以“殖民地统治与制度变化”为主题进行学习。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비숍이 여행한 19세기 말 조선의 경제상황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당시 개항장(부산, 제물포, 원산) 사이를 이동하거나 나가사키나 블라디보스톡 등의 해외로 이동할 때에는 일본 해운회사의 배를 이용하였다.
- ② 개항장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생겼고, 일본인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치외법권을 갖는 마치 little Japan과 같은 사회가 형성되었다.
- ③ 개항장을 벗어나 조선의 내지로 들어가면 화폐로서 엽전과 함께 은화가 유통되었다.
- ④ 농촌의 장사에서 거래된 품목은 농민이 내다 파는 것 이외에 대부분 보부상에 의해 공급되었는데, 거기에는 일본이나 영국산 면제품이나 잡제품 등의 수입품도 있었다.

**정답** ③

**해설** 개항장에서는 은화인 일본의 엔화와 멕시코 달러 등이 유통되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엽전이 유통되었을 뿐 은화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다. 비숍은 남한강과 북한강 변을 따라 여행을 할 때 나룻배에 엽전을 깔아 운반해야 했다. 엽전이 다 떨어진 후 은화를 엽전으로 바꾸고자 하였지만 은화를 신뢰하지 않아 환전을 위해 서울로 되돌아 가야 하는 상황에 빠졌고, 결국 불리한 환율로 겨우 환전할 수 있었다.



## 02 19세기 말의 정치상황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임오군란(1882년)으로 실권의 위기에 빠지게 된 민비는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그때 청국과 맺은 통상조약에서 조선은 청의 ‘속방’임이 명시되었다.
- ②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조정은 다시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도 군대를 보내 1894년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이때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여 그 영향 아래에서 개화파 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후 3차에 걸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 ③ 아관파천(1896년) 이후 고종은 단발령을 부정하였지만, 갑오개혁으로 단행되었던 개혁조치들을 계속 추진하였다.
- ④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1897년)하였는데, 그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1899년)에 따르면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의 제국이며,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갖고 입법, 행정, 군 통솔권, 외교 등 권력을 집중한 전제 군주국임을 천명하였다.

**정답** ③

**해설**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단발령(1895년)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일본은 물론 그들의 지원으로 추진되어온 갑오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1896년 아관파천)하여 자신은 단발령에 동의하지 않으며 을미사변에 연루된 자와 갑오개혁의 주모자들을 반역자로 단죄할 것을 선언한다. 그로 인해 기존 내각이 무너졌고, 김홍집을 비롯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자들이 성난 민중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그 후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온 개혁조치들은 상당수가 무효로 되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왕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중앙관제도 과거로 후퇴해 버렸다.





### 03 개항기 무역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개항기 조선의 무역통계는 영문으로 발행된 청국의 해관 통계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었으며, 무역액은 은화인 멕시코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다.
- ② 개항기 조선의 무역은 빠르게 늘어났는데, 그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 ③ 개항기는 불평등조약으로 개방이 강요되었으며 조선이 쌀과 콩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하였는데, 교역조건은 조선에 불리하였다.
- ④ 조선의 재래 직물업은 수입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 저렴한 수입 면사를 사용하여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농촌 가내공업 형태로 잔존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개항기의 품목별 수출 및 수입 통계로부터 단가를 구해 교역조건 지수를 구해보면 조선에 유리하였다. 예컨대 대표적인 수출품과 수입품인 쌀과 생금건(면직물)을 예시하면, 1881년에 조선미 1석을 수출해서 생금건 37 평당야드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1900년대에는 90 평방야드로, 1930년대는 139 평방야드로 높아졌다. 즉 쌀에 비해 면직물의 상대가격이 그만큼 저렴해졌고, 조선인은 교역의 이득을 향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쌀이 증산되고 재래 직물업이 쇠퇴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 주제

비숍은 러시아령 만주로 간 18,0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정착촌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비숍에 따르면, 그곳의 조선인들은 번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과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난민들에 불과했는데, 만약 도망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들 역시 조선에 남아 있었던 조선인과 똑같이 가난에 찌들어 독립심도 없이 빈둥거렸을 것으로 보았다. 즉 시베리아에 정착한 조선인의 번영은 조선에 남아 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비숍은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현대의 제도 경제학의 핵심적인 명제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동질적인 두 집단이 다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두 집단의 행태나 경제적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 토론해 보라. (60분)





### 참고

이러한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남한과 북한이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므로 두 체제는 제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를 모두 통제(control)하여 마치 제도의 실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cemoglu and Robinson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걸쳐 있었지만 국경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갈레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원래 한 도시였는데, 19세기 중엽에 그 북쪽은 미국으로 편입되었고 남쪽은 멕시코에 남아 갈라졌는데, 그 후 두 도시의 제도가 달라졌고 현재 두 도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은 전혀 달라져 있다. 수강생들은 자국의 문화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바란다. 국경으로 단절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 두 지역이나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인센티브가 달리 부여되어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나 성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도서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1994. (이 영문판은 <http://anthony.sogang.ac.kr/Bird/KoreaandherNeighbors.htm>)
- 김재호(2016),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 생각의 힘.
- 김낙년(2001), 「조선 무역의 장기동향」,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 서울대출판부.

